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559호 1991년 3월12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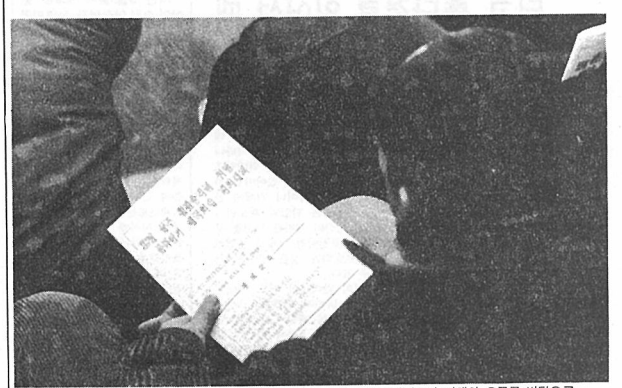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발 행 인 이 강 혁
편집인겸주간 이 정 희
편 집 장 최 원 일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김 영 수

합의 위한 가합의, 하나됨 위한 독립채산제

정부의 교육세 유용이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등투, 인상률 경쟁 아닌 학생들의 이해 요구 반영해야



등록금 책정은 대학당국과 학생회간의 인상률 경쟁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재영 기자〉

지난 3월5일(화)과 6일(수) 양캠퍼스에서는 「화대운영회의」를 열어 등록금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다.

5일(화) 개최된 서울캠퍼스 「비상확대운영위」는 경과보고, 중앙운위및 단대운위 입장발표와 등록연기 결의 등으로 진행되었고, 「가합의로 인한 등록금일방고지와 등조위파탄의 책임은 대학 당국에 있다는 것」과 「15.54%의 등록고지는 기만적으로 등록금책정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이므로 등록연기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등록연기대책위」구성을 결의하였다.

한편 6일(수)에 있었던 용인캠퍼스 「확대운영위」의 경우, 방중에 전개되었던 등록금투쟁에 대한 경과보고와 「학원민주화를 위한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와 인준이 있었다.

그간 본교 등록금투쟁은 용인캠퍼스 가합의안 타결과 서울캠퍼스의 독립채산제요구로 인해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7일(목)에 가진 양캠퍼스 공동투쟁방안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가합의안」자체는 서울캠퍼스 학생회와 함께 합의하기위한 「가합의 상태 이상은 아니라는 점과 「독립채산제」역시 대학당국의 일방고지를 철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었다는 점에 일정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이후 등록금투쟁에 있어 양자간에 책임성있는 사람이 참회등에 결합, 각 학생회의 (공동투쟁에 대한)입장을 상호 피력하기로 하였다.

본교 올해 등록금투쟁의 목표는 「등록인상률 낮추기」보다 학우들의 이해요구를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점이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협상과정에서 최대초점이 된 것은 「인상비율을 몇 퍼센트를 하느냐」였다. 88년 문교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자율화조치」이후 본교뿐 아니라 국내 모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두자리수로 해마다 치솟았고, 따라서 대학당국의 인상안과 학생측의 동결안이 부딪히는 가운데 적정한(?) 수준의 인상비율이 결정되고 학생들은 인상의 근거로 학내복지및 학자합의사항을 도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교 상황에서도 보여지듯이 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라도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실행은 유보되어져 왔고,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대면서도 저급한 생활여건을 제공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전환이 근거없는 등록금인상안에 대한 수용은 아니다. 『85년 당시만 해도 5~6십만원대였던 등록금이 불과 6년만에 백만원대에 육박한다』고 호소하던 한 학생의 지적처럼 본교 뿐 아니라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인상비율은 기하급수적이며, 특히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미약한 사립대학인 경우 재정의 열악함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의 상황도 대학당국의 인상안대로 였다면 전체예산중 등록금의 비율이 9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에 현재 대학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금조성을 위해 「대학발전후원회」를 계획, 점토단계를 지나 다음달 정도에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용인총학과 학교당국간에 합의한 「학원 민주화를 위한 합의사항」내용

1991년 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을 가 합의 하였으며, 이문캠퍼스의 가 합의사항을 첨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한다.

1. 1991학년도 학기당 등록금(자치회비 및 교지대 6,000원 포함)인문계 862,300원, 자연계 925,500원으로 한다.
2. 1991학년도 학기당 등록금 인상분중 인문계 4,700원, 자연계 4,900원을 용인 캠퍼스는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 건립 기금으로 하고 이문캠퍼스는 추후 협의 결정한다.
3. 효율적인 예산 집감방안을 4월초에 학교와 학생회는 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논의한다.
4. 교과과정 개편과 강의 평가제에 관한 교수협의회와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는 1991년 1학기 말까지 제시한다.
5. 총장 선임방법의 개선안은 각 구성단체 별로 시안을 차기 총장선임 1년 전까지 마련하여 학교에 건의한다.
6. 동문회비 납부방법은 동문회와 학생회 의견을 수렴한후 조정 결정한다.
7. 학교의 후생복지와 학생회의 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학교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8. 대학발전 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수 있다.
9. 승차장 이전과 분수대, 시계탑 건설계획을 도서관 개관시까지 마련한다.
10. 학생회관 식당의 확장을 도서관 개관시까지 완료하고 야외무대는 1991학년도 1학기중 착공하여 2학기 말까지 완공한다.
11. 신 강의동은 1991년 중으로 설계하여 1992년 초에 착공한다.
12. 동아리 및 학과 학회방의 전화기 설치를 1학기내에 완료한다.
13. 제단의 운수회사 설립과 입대 자취촌 건설을 학교와 학생회는 제단에 적극 건의한다.
14. 대국 문화관은 설계도가 도착하면 속히 착공하고 학교는 국제 민속박물관(가칭) 유치에 적극 노력한다.
15. 서양대학에 속한 동구어계열 학과들의 단대분리는 소속 대학장과 소속 교수·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승인 신청한다.
16. 용인 캠퍼스에 건립될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를 1991학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한다.
17. 위 사항을 학교와 학생측은 매월 1회씩 점검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등록금인상안」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규명이 요구된다.

사립대학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사립대학의 수입은 크게 재단전입금(재단에서 들어온 돈)과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 기부금(외부기탁금형식) 그리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등록금의 준비율을 낮추면서도 재정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재단전입금 확보와 국고보조금 확대에 있다.

그 이유는 사학재단과 국가가 짊어져야할 대학재정과 국민교육에 대한 책임성에서 기인한다. 사립대학 재단의 입무는 자신의 부채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또한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교육권리를 확대」해 나가지는 못할망정 「수익자부담」을 이유로 자신의 부담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1만3천 외대인이 견지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예산에 반영시켜 내는 부분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안에 반영되지않는 합의문은 실질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캠퍼스의 등록금투쟁을 이끄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원칙은 우리의 모든 투쟁의 목표가 학원의 민주화와 교수·직원·학생의 제권리를 획득하는 자주화에 있다 할때, 현재 보이는 입장차이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신나영 기자〉

사설

정국 뒤안길에서 조작되는 반통일 음모

걸프전쟁과 수서사건·지자제등 들끓는 정치정세속에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노태우 정부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그것들은 수서사건과 지자제를 교묘히 역이용한 파편적 언론플레이로 펼쳐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비 분담금과 수송단파병 등 걸프전에 온 곁치를 씌고 있는듯 했다.

그러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모든 간부와 통일꾼 홍근수 목사를 전격 수배 구속할 정도로 당국의 여력(?)은 충만했다.

바로 며칠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리처드 솔로몬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틀후 이상옥 외무장관의 「올해안 남한 단독유엔가입 강력추진」 표명으로 배들지이진 일련의 사태는 물레돌레 흘러가려는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세 주체인 `남·북·해외 동포의 결집체이다. 그리고 그것의 남한측 본부는 60개가 넘는 민족민주단체로 구성된 4천만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하원이 말하듯이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1천여개의 미국핵』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인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통한 북한의 핵개발 금지」역시 미국 하원 스스로가 답해 내었다.

북한의 유엔가입안인 남한과의 단일 의석안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한 외무장관의 말은 작년 자신들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던 남·북고위급회담의 기본 정신과도 반대방향이다.

이같은 미국의 확고부동해진 고자세를 걸프전을 통해 얻은 군사대국의 「핵시위」정도로만 보는 언론은 귀와 눈이 없단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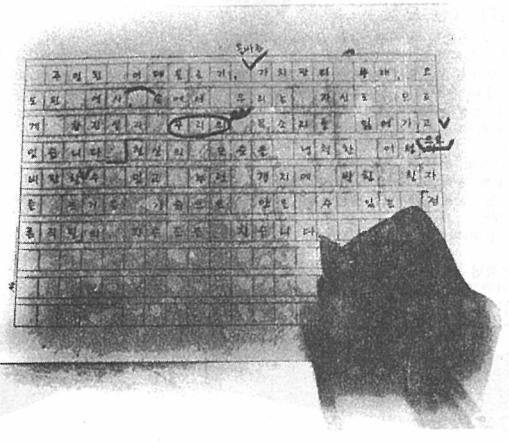
「남의 피」를 마셔야만 살수 있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얻은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채워넣어야 할 것은 한반도 분단의 피」가 될 수 있음을 왜 말하지, 않는가.

47년째 진전되어 오고 있는 민중의 통일논의에 며칠만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을 더이상 통일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사상최대 규모의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올해 벌어질 광범위한 통일운동을 사전부터 봉쇄하기 위한 것임을 주시하자. 그것도 온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는 시기를 치졸하게 이용해서 말이다.

지 면 안 내

민족민주진영의 지자제 대응 6면
학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학생회 8면
방송 재장악 음모
「더이상 앵무새가 될 수 없다」 10면
걸프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추이 4면
등록금투쟁 관련기사 ..... 3·9면

지금의 작은 용기가 보람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새내기 여러분, 각자의 대학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 하겠지 하는 생각만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허울 좋은 환상일랑 과감히 버리고 스스로 알찬 생활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학에서는 찾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매력

대학신문의 학생기자는 새내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여가선용하듯 사진기 메고 이슬렁거리다가 사건 생기면 취재하고 유식할 말로 기사 쓰는 그런 사치스런 기자가 아닙니다.

1만2천 외대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신문을 만드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얼게라도 모자랄 만큼 뛰어다니고 밤샘하여 기사 쓰는,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며 이웃의 아픔엔 눈물도 흘리는 학생 기자에게는 유리잔 같은 얇은 반짝거림은 없어도 진한 뚝배기의 매력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찾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바로 지금 제45기 수습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입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잃어가는 목소리를 되찾고 드러나는 모순 앞에서 부서져 가는 자신 위에 다시 우뚝 설 91학번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안일한 생각과 숱한 망설임으로 아깝게 놓치고마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론직필」파수꾼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함께 만납시다.

외대학보 제45기 수습모집

흡산의 소리

흡산(HUFSAN)은 외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교수, 학부모, 바로 이분들이 「흡산의 소리」를 위어 나갈 주인입니다.

외대학보에서는 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인정이 넘쳐 나는 따뜻한 사건에 대한 훈훈한 목소리를 「흡산의 소리」에 담고 싶습니다.

「흡산의 소리」 200자 원고지 2~7매로 형식은 자유롭고(시평, 수필, 편지글 등) 독자 만평, 독자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외침

—3·8 여성대회를 다녀와서

지난 3월8일, 봄을 시샘하듯 차갑게 흩날리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찾아간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대강당은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7회 한국여성대회를 알리는 깃발이로 들떠 있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후로 세계 여성들은 노동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진보적 여성들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펼쳤으나 일제탄압으로 중단되고 85년에 와서야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여성의 날」이 되찾아졌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여성 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대회 선포, 제일 한국인 여성회의 연대사, 91년 중점사업 선포, 올해 여성상 시상, 어머니 노래단 발표,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시종일관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특히 91년 중점사업 선포에서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하여」라는 대회 주제하에 비디오 상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게스펌이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 』를 고발하고 차별받는 여성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힘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의 여성상은 오랜 세월동안 넘기 힘들었던 분단의 벽을 뛰어 넘은 통일의 꽃 임수경 대표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임대표는 구속 수감중이므로 어머니께서 대신 수상하시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이 땅 여성들은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희생물로서, 외세에 억압받는 민중으로서 모순을 안고 살아왔다. 물론 우리 여대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성들은 억눌리고 왜곡된 개별적 모습을 타파하고 주체로 나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싸워 왔다.

우리 여대생의 올바른 모습도 그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원, 가정, 그리고 진출한 사회속에는 여성을 억압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겠다. 여성을 비하시키는 문화를 척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그리하여 더이상 남성의 보조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주체적 삶을 개척해가는 모습으로서 우뚝 서야 하겠다.

여성 대회에 함께 자리했던 우리의 어머니·선배·친구들의 힘차고 건강한 모습이 올해에 이룬벌에서도 많이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동양·일어3 김미옥〉

독자 만평

흔들리는 대학사회

〈자연·화학2 이희관〉

이제는 둔감해진 왕산교통문제 언제쯤 해결되려나

매년 신입생을 맞을 때를 즈음하여 우리는 등록금 문제, 복지문제 등 여러가지 개선을 요하는 일들을 학교에 건의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생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늘 개운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

먼저 대다수의 학우들은 등록금의 인상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생에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는 학우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덧붙여 실수업 시간의 휴강이나 3시간 수업이 그 반으로 대폭줄어 강의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는 학우는 별로 듣도 보지도 못했다. 후자는 간과되어도 무방한가?

두번째 문제는 왕산 5천여 학우 대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다.

서울에 기거하는 학우들의 다수는 지난해의 경우 3~4시간을 차안에서 보내야만 했다. 한술 더떠 올해는 여러가지 공사 관계로 4~5시간을 차안에서 지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긴 시간을 길위에서 보내고 싶지 않은 학우의 다수는 기숙사 혹은 모현의 자취·하숙방을 찾게 된다.

용인에서 학교 지입제 차량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1백원을 차비 명목으로 지불한다. 그런데 이 거리의 반의 반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길을 이용하는 모현 학우들은 그 두배의 돈을 차비로 써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점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각적인 교통로의 검토와 서울 전지역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경유지의 재검토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는 교통비의 인하만이 해결방책이 아니라 모현·학교간의 순환버스를 학우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집중 운행하는 방법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재단 이사장님이나 총장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왕산의 학우들과 같이 생활한다면 위의 문제들이 지금처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혹은 미온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갖출 수 없다.

끝으로 우리 학원이 서로 믿고 서로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한다.

〈동학·아랍어3 황운산〉

학생·직원간의 인격존중 학원발전의 시초

지난 6일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학생처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다가 학생처 동아리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욕설을 듣는사태가 발생했다.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해야 할 학생처에서 그동안 행사 준비로 찾아가는 동아리 대표자나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 강압적으로 대해 왔던 경우가 비일비재한 마당에서, 2천여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에대한 망언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2천여 동아리인, 나아가서 왕산 5천 학우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동아리 연합회는 사태 직후 학생처와 담당 선생님께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동아리 대표자 회의때 모인 회장님들에게 알리고 차후 대책을 논의하던 중 여러 동아리 회장님들로 부터 그동안 동아리의 자치 활동을 지원 받기 위해 학생처를 방문했던 많은 학우들에게 학생처는 불손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대해 왔음을 확인했다. 더해히 다음날 학생처 선생님으로 부터 사과를 하신다는 연락이 와서 40여명의 동아리 회장님들과 함께 학생처를 방문했고, 전날의 불상사에대한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섰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래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그간 적된들의 불친절을 겪었던 학우들도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비록 우리의 항의에 사과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앞으로 찾아가는 학생들에게 친절로 바뀔수 있을까」하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흔히 학교는 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같은 구성원으로서 학교 직원과 학생들 사이가 이렇게 계속 악화되어 간다는 것은 진정한 학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이는 학생들만,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언어3 한영〉

『돈 아까우면 공부해』

이건 매년 연례 행사로 안올리면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Ro?—

대학생들은 부자니까 —어느 산동네 아이가—

물가라는 아이에게 지기 싫어서 —플러—

내 월급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이 내야 하는 것이 등록금이니까 뭐!? —주인 아줌마—

신입생이 뭐 알겠니, 올리면 내겠지 —태우—

지난해 한자리 수 등록금 인상에 기뻐했는데 기어코 작년 못올린 것까지 올해 올린다고 하니 누군지 몰라도 학생들 좋아하는 모습을 어지간히 싫어하는 모양이네. —미소—

—이사장(?)—

학생은 돈줄이니까 —서—

재단빚도 우리가 갚고 나라빚도 우리가 갚으니까 —영구—

주제: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

다음주 주제는 「지지자 선거에 당선되려면」 입니다.

노가리의 배가 부어 올라 학교 배가 부어 오르고, 학교 배가 부어 올라 등록금도 부어 오르지 —또라이—

재단은 학교에서 더욱 열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므로 —노랭구리—

등록금이 오른만큼 우리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리라는 ○○○의 착각 때문이 아닐까? —푼—

FX기 2백대 구입비면 60년간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데 이렇게 계속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보면 60년간 올린 등록금으로 FX기를 구입하려는 것 같다. —왕산인—

너희가 내입장 돼봐. 딴 학교 다 올리는데 우리학교만 안올리면 그게 말이 되나? —동원—

방종과 독단의 분열을 딛고 총단결로 일어설 때

—신입생 준비학교를 다녀와서

지난 2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왕산에서는 새내기 칫들살이가 있었다. 고 남현진 열사 진상 규명 투쟁으로 인해 칫들살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으나 총학의 노력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치루어졌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던 총학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칫들살이에서 새학생들과 각 단대들이 보여주었던 분열된 모습과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번 왕산 총학은 자주적 학생회 건설이라는 표어를 걸고 그 첫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새내기 칫들살이를 준비했었다. 그런데 이런 총학의 표어를 마치 간과한 듯 몇몇 단대에서 보여준 방종에 가까왔던 행동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첫째로 첫날 있었던 집체극을 불참하면서 단대 시간을 갖는가 하면, 날씨 관계로 기숙사 식당에서 거행된 굿마당과 초대 가수 시간의 자리 문제를 가지고 인권복지위원장의 공식 발언을 중단시키고, 뒤이은 약식 발표회이에서는 총학생회장의 간단한 인사말마저 듣기를 거부하고 기숙사로 미리 철수했던 어느 단대의 행동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그 단대만의 독단적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대간의 괴리감은 물론 불신감을 조성하여 다른 학우 대중들에게 크나 큰 악영향을 미칠 일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로 칫들살이 마지막 날, 자연대 강당으로의 집합이 늦어져 타단대 새내기와 재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1시간이나 지체시켰던 어느 단대의 모습도 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참가자 누구나가 피곤해 하며 빨리 귀가하고 싶어 하던 그 순간에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다수를 생각하는 외대인의 참모습을 왜 잊었을까 반문하고 싶다.

위의 예는 매우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현상들이었지만, 여기에는 각 단대가 중앙의 통제를 무시하고 자체내 프로그램만을 중시하는 이기심을 내세운 생각과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올 총학의 표어인 자주적 학생회 건설 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며 자주적이지 못한 방종과 독단으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 대학이 이기심이 투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 외대인조차 그런 성향에 빠져 있어야만 하겠는가? 올해 가뜩이나 거세게 불 것이라 예상되는 탄압의 회오리속에서 5천 왕산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듯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의 단대들이 어느 단대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 단대를 책임지고 있는 단대 학생회장에게 5천여 왕산인 뿐만 아니라 칫들살이에 참가했던 새내기들에게 엄중한 정식 사과문을 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자숙하며 힘차게 총단결의 결의를 다질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왕산 학우들, 우리 다시 총단결의 결의를 다집시다.

〈인문·사학2 안기환〉

답변란

지난 3월5일자 558호 흡산의 소리 이란어과 정영학군의 「알고나 먹읍시다 식당요금 인상 이유」에 관한 답변

음식값 인상에 관해 후생과 후생주임 이정규씨는 『유가 인상에서 파급된 소비자 물가 인상과 시설 유지비, 인권비 등의 계속되는 지출탓으로 학교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부터 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해오다 연중에 급작스레 올리기 보다는 회계년도는 넘기고 91년 회계년도 시작엔 1월4일부터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음식값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재료비와 인권비 못지 않게 드는 비용이 시설 유지비입니다. 외자와 수저가 없어지고 쉽게 던져 버리는 컵 또한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시설 유지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며 학우들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알 림〉

이번호 명수당은 필자 사정으로 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기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진정한 외대인의 신문으로 펼쳐 일어서기 위해서, 기자들의 자족적인 제작태도를 버리고 독자대중의 매운 질책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독자의 본질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 이외에도 기자와 함께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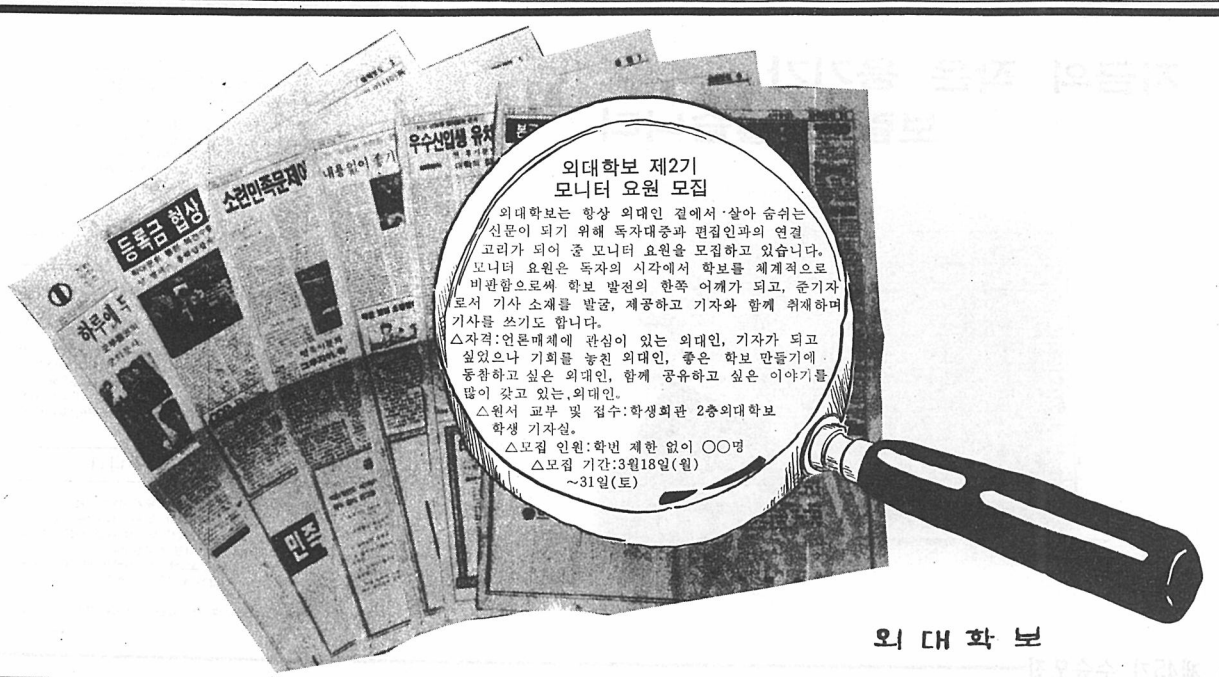
외대학보는 언제나 외대인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자 격:매주 외대학보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는 학우 (학번 제한 없음)

▲원서접수: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 기자실

▲모집인원:○○명

▲모집기간:3월18일(월)~31일(토)



양캠 총학 등투 협조 확인

서울종학, 등조회의 재개 요구·재무처 학생처 폐쇄

등록연기 결의, 등록률 낮아 학생측 유리할 전망

서울캠퍼스 학생 5백여명은 지난 7일(목) 「등록연기결의대회」를 갖고 재무처장실과 학생처장실을 폐쇄했다.

91학년도 재학생등록금이 대학당국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가합의후 작년보다 12만원가량 오른 15.53% 인상액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된 것을 시작으로 커다랗게 드리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당국의 마찰이 재무처·학생처 폐쇄로 치달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대학당국이 지난 4일(월) 15.53% 인상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대해 당초의 등록금 조정위원회 구성원칙을 비롯한 「학생의 등록금 결정에 참여」라는 당위성을 목살한 데도라고 밝히고 「조속한 등조회의 재개」를 대학 당국에 요구, 지난 5일(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학생처 폐쇄경고를 통해 학생측의 입장을 구체화 하였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서울캠퍼스 학생 5백여명은 지난 7일(목) 노천극장에서 「등록연기 결의대회」를 열고 「등록금 고지서 발부의 즉각 철회」와 「등조회의 재개」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재무처장실과 학생처장실 출입문을 폐쇄했다.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보인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의 등록금 인상안 가결정을 이용,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의견차이를 심화시키려는 분열조장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양 총학생회의 입장차이는 각 캠퍼스의 지역적 특성과 1학기 사업계획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지난 6일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종민(서학·불어4)군과 서울총학생회대표자들간의 만남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서울캠퍼스와는 별도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일·5일 두차례의 확대운영회의를 통해 15.53% 등록금 인상안을 각과·동아리 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켜 등록금투쟁을 일단락지었다.

이후 학생들의 등록여부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대학당국과 학생측의 마찰은 총학생회의 입장이 관철되는 쪽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캠퍼스는 확대운영회의, 결의대회 등을 통해 등록률이 바닥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용인캠퍼스의 경우도 대다수 학생이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을 유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결국 등조회의 재개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등조회의가 재개될 경우에 나타날 등록액수의 캠퍼스간 차이등이 초래할 문제들을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어 당장 이의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잦은 만남을 해 결방안이라고 보고 모든 집회등에 용인캠퍼스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참석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앞으로의 등록금 투쟁에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화 하기 위해 「등록을 연기할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홍보작업과 과도론회 개최를 계속 벌여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용인교통체증심화 골프장 진입로 공사때문

지난 3월2일(토)부터 성남—광주간 산업도로에 골프장 진입로 공사(갈마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면서 혜행신 차량이 우회하고 있어 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용인캠퍼스 총무처에서는 지난 6일(수) 시공자인 한일개발과 국토관리청을 방문 「이 공사는 일부 골프장(뉴서울 컨트리클럽)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법(개착식공법)을 이용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신모씨는 마을은 터널공사지역 반대쪽에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며 골프장과는 무관하다」라며 「오는 27일(수)부터는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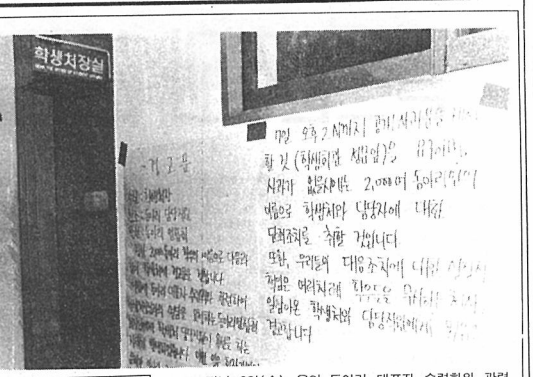
사 령

임

취재부장:이원영(서양·독어3)
김영식(서학·유고어3)
기획부장:신나영(동양·인도어3)
여론부장:정성엽(동학·아랍어3)
김유경(동양·이란어3)
학술부장:확선혜(서양·독어3)
문화부장:김연희(인문·언어3)
사진부장:주재영(인문·철학3)
〈이상 8명 3월12일자〉

면

기획부장:류영조(자연·환경3)
임기만료로 사임
〈이상 3월11일자〉



초점

지난 6일(수) 용인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와 관련,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동아리연합회장에게 담당직원이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은 분명히 대학당국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자세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원 기자〉

신임교수 8명 소개

차이꼬프스키 올레그 아나똘레비치

▲슈테판 링클라케(Stefan Rinklake) 〈독일어과〉
61년 독일 뮌스터출생. 빌레펠트대학 졸업, 석사. 빌레펠트전문대에서 강사.

▲크나이더 한스 알렉산더(Kneider Hans Alexander) 〈독일어과〉
56년 독일 보름출생. 보쿰대학 한국학전공, 동대학원석사. 서울대 국사학박사과정이수. 순천향대 시간강사.

▲차이꼬프스키 올레그 아나똘레비치(Zaikovsky Oleg Anatolyevich) 〈노어과〉
59년 소련 모스크바출생. 빠뜨리스 루뭄바 인민우호대학 역사언어학부 졸업, 모리스 토레스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 강사. 소련 영화예술국립대학 러시아어 강사.

▲블라디미르 푸체크(Vladimir Pucek) 〈체코어과〉
33년 체코슬로바키아 출생. 프라하 카렐대학 한국학전공, 동대학원 철학박사. 카렐대학 철학부 한국학 조교수. 동대학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역임.

▲스네자나 조리츠(Snjezana Zoric) 〈유고어과〉
55년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출생. 자그레브대학 민속학 전공, 동대학원 사회학석사.

슈테판 링클라케

장재덕

▲김상근(金相根) 〈중국어과〉
34년 서울출생. 본교 중국어과 졸업. 대만 국립정치 대학 교육학 석사.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학박사.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방어문학과 교수. 중앙대 중국어과 교수겸 본교, 숙명여대, 성균관대 대학원 강사.

하현준

김상근

크나이더 한스 알렉산더

▲하현준(河炫俊) 〈화학과〉
59년 서울출생.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학 화학과 박사.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 대학원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화학부 선임연구원.

▲장재덕(張在德) 〈수학과〉
59년 서울출생. 서울대 수학과졸업, 동대학원 석사. 본교 조교, 시간강사. 미국미네소타대학 대학원 박사.

한수로

▲지방자치제 분리선거
—장기집권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평화방송사태
—장기집권은 방송정악하기 나름(?)
▲용인, 교통체증 심화
—등교버스, 취대차로 개조 시급

빈의자

지자제의 그늘속엔

▲『평소 이씨가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해 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지난 3월9일(토) 「지방의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40대 중반의 김모씨가 경찰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지방의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는 다름아니라 자신의 구(區)내 기초의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이모씨(새마을금고 이사장)가 추천장을 받으러 오자 이에 격분해 오히려 김씨가 그동안 들아다니면서 받아 놓은 추천장 4장을 찢었기 때문이다.

▲요즘 일간지, 주간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제」에 관한 기사 일색이다. 31년만에 부활된 지자제가 어떻다느니, 1960년 12월의 마지막 지방자치선거 분위기와 유사하다느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며 지면의 대부분을 모두 지자제에 관한 기사로 채워내고 있다.

오히려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뇌물외유 사건과 수서비리에 관한 내용은 쏙 들어가 버린 지금이다.

더군다나 지난 9일(목)에 보라매 공원에서 있었던 「수서비리 진상규명 국민대회」마저도 그 의도야 어떻든 정당활동을 빙자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라 하여 모든 사안들을 「지자제」와 엮으려고 하고 있다.

▲노정권은 자신들의 최대 약점으로 등장한 「뇌물외유」와 「수서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5월이후 등서에 하기로 했던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선거를 분리하여 3월26일로 앞당겨 하자고 주장하여 원하는 대로 26일 「기초의회」 선거를 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온통 이 사회는 지자제선거 분위기로 들떠 있다. 결국 이느 정도 정권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알 수 없다.

언제나 기만 당하며 참아 오던 국민들이, 급기야 분노하여 언제 투표용지를 찢는 상황이 벌어질지….

그만큼 온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험수위까지 올라있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쉽게 「정치적 냉소주의」니 이쩌니 할 수 없으리라.

그것은 바로 87년이후부터 꾸준히 쌓아왔던 국민의 정치의식을 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희〉

외대학보 45기 수습기자 모집

자주언론의 새시대를 이끌어나갈 언론인꿈을 찾습니다.
▲모집대상:91학번 새내기
▲모집부문:일반·사진·만화기자
▲전형방법:1)1차 필기시험
신문평, 서평, 영화평중 택2
2)2차 면접시험
▲전형일자:3월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원서마감일:3월15일(금)오후5시
▲원서배부및 접수처: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고침

지난호(558호)빈의자 내용중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파나마 침공으로, 주간서리 임명기사 내용중 학사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고칩니다.

외·대·학·보·광·고·질·서·회·복·운·동·을·위·하·여

13천 독자 여러분!
1만
3분의 1인 광고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광고가 전체 신문 지면의 1/3을 차지하는 다른 형태의 기사임을 전제할 때 광고 역시 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감 속에서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89년 벽두 외대학보사를 중심으로 그 투쟁의 봉화가 치켜 올려진 「대학신문 광고질서회복운동은 전국의 대학신문에까지 그 영향일 미쳐 대학 신문 광고의 새전환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간 독자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눈물어린 격려로 이제는 대학과 대학인의 위상에 배치되는 뇌폐 광고, 여성 성상품화 광고, 제국주의 문화 침투 광고 등이 외대학보에서 깨끗이 사라졌음을 1만3천여 외대학보 독자 대중과 함께 나눌 큰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

외대학보 광고게약에 대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에 걸쳐 투쟁해 온 「광고질서회복운동」의 의의에 합치해야 합니다.
—대학과 대학 신문을 장사판처럼 여기는 악덕 광고 대행사가 발붙일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외대학보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의 과학화와 기술 실무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자료실을 설치, 다른 대학 신문과의 정보교류가 시급합니다.

우리 대학 신문의 논조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건전한 민족 광고 대행사를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해마다 광고 대행사간의 경쟁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말려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학 신문의 이념에 맞는 민족 광고 대행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체료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악질한 방상으로 막대한 자본을 통해 다시 대학신문 광고를 타락시키려는 의도를 철저히 매격할 것입니다. 더 없는 많은 매체료와 학생 기자 장학금으로 대학을 유혹하고 「공개 입찰」의 진정한 끝까지 호도하는 논리에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외 대 학 보

걸프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추이

윤형진
(대학원 아주지역학과 석사과정)

힘의 논리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깃발이 다시금 강하게 나부낀다.

걸프전쟁이 막 끝난 지금, 미국에 의한 전투기·미사일등의 노골적인 힘과 무력사용이 세계재패의 척도가 되고 있다. 미국은 또다시 세계적 패권국가임을 확고히 함으로써 모든 결정과 권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소련과 동구개혁이후 발칸전과 군축의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세계질서를 뒤흔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접근방법

첫째, 전쟁전까지 주류를 이루어 온 탈냉전시대의 신질서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

즉, 「세계는 다극화되어 미·소·일·독의 4극체제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걸프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 즉 「석유 제장악」을 통한 전세계적 패권 강화라는 미국의 의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후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전망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일수 밖에 없다.

전후 세계질서 재편은 지나온 상황속에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먼저 정확히 짚어짐으로써 올바로 접근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정책을 매우 긍정적 측면에서 파악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쟁기간에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소련의 경우는 힘이 없는 외교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고 「이상」도한 국익이라는 현실에 기반을 둔것임이 입증되었다.

일극체제를 추구하는 미국

지난해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합병 이전의 세계는 냉전종식과 소련및 동유럽의 개방화 물결이 한창인 시기였다. 또한 금세기중 가장 급격하고 광범한 평화적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두 초강대국 미·소의 협조속에 2차세계대전 이후 40여년 이상 자리 잡아온 동서냉전은 해체되었고 정치·군사적 관심은 축소되고, 경제력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은 60·70년대의 급격한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한 일본·독일과 전세계적 지배력을 일정정도 공유해야만 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제무엇인가 새로운 계기를 통해 미국의 세계지배력의 재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기를 통해 80년대 이후 재정·무역적자에 따른 경제난의 심화를 일거에 역전시킬 필요가 제기되어 새로운 세계전략의 수립이 당면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범아랍민족주의의 바람이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일어났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한 것이다. 새로운 세계 전략 수립을 위한 호기였다.

90년 초에 발표된 미행정부의 정책보고들은 이러한 세계전략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신하는 무언가 새로운 계기를 「새로운 위협」의 창출의 필요성으로 표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90년 3월 미정부에 의해 발표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새로운 위협」은 주로 「지역지배를 꿈꾸는 나라」와 「침략, 위압, 반란, 테러리즘, 마약의 부정거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 구상은 예산편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부시는 연방재정적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략방위구상(SDI)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즉 강대국의 지위는 고도의 첨단무기를 바탕으로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된다는 기조에서이다.

나머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등에 분담시켰다. 이는 곧 최소 전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재고무기를 처분하여 미산업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군수산업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미소비시장의 수요증가를 가져와 미국경제에 있어 GNP의 0.5%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세계지배력 쇠퇴와 그에 따른 위기감을 이번 걸프전쟁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만회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국제질서재편은 미국의 의도가,그대로 관철되며 이루어질것 같다.

이빨빠진 사자 소련

소련은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이느국가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 1986년 개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킨 이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직하되는 민족분규 속에서 이번 걸프 전쟁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걸프 전쟁이 아니었다면 민족분규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서방측의 비난과 경제 봉쇄를 당할 가능성도 있었고 원유 수출·수입의 증대는 장기화될 경제난에 생명수 끼얹기 때문이다.

맨처음 소련은 걸프 전쟁에 대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했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소련은 전후 세계 질서에 있어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남기 위한 노력으로 평화안을 제시하는 등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벌였다. 이는 이란, 터어키, 아프카니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의 입장에서 이 엎대기 미국의 독무대로 바뀌는 것은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용인할 수 없기니와 현실적으로는 민족 분규는 경제난과 함께 개방과 소련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걸프 전쟁이 소련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걸프 전쟁에서 미국의 노선에 협조해 준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소련은 서방의 협조없이는 기본적으로 개방화 이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물론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에 직접적 파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긴 하지만 전후 세계 질서 속에서는 영향력 쇠퇴를 상당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소련은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직간접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핵우산하의 지역강국 —일본과 독일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일본과 독일은 국의 승리는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99.6%와 85.2%에 달하는 일본과 독일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는 만증으로 나타난다.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제3세계

걸프전쟁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소련에서 국제시세보다 훨씬 싸게 원유를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소련이 자국의 경제난이 가중되자 석유공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등시에 1991년 1월부터 원유가격을 국제시세로 결제할 것과 대금결제수단을 달러로 할것을 통보하자 원유선을 중동으로, 특히 이라크로 돌렸고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건설공사를 해주면서 원유를 공급받아왔다. 중동사태가 시작되면서 이라크에대한 봉쇄로 우리에게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대국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 초기에 일본과 독일의 역할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첫째, 독일과 일본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전쟁분담금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으로 걸프전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다. 둘째 군사기술에 있어 일본이 첨단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걸프전에서 사용중인 무기의 대부분이 사용중지 될 것이다라고 군사전문가들이 말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 냉전의 시대에서는 막강한 경제국인 이들 양국이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45년 2차세계대전 이후 기본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후원과 핵 우산하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측면 뿐만아니라 무역·산업등 경제적 측면에서 조차 미국을 배제하고서는 그 존립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들어 미국의 산업구조조정 요청이 이들 국가에서 수용·관철되고 있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즉 농산물 수입 전면개방등 U·R협상에서의 일본의 대폭적인 후퇴와 전후 복구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군사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걸프전비의 50% 가까이를 내놓던 것이다.

세계 석유생산의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제장악을 통한 미

이들은 무기판매 대금과 건설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산유국인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사정은 모든 국가들이 비슷하지만 그중에서 폴란드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이로인해 파산하는 기업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제 동구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상실했다.

동구국가들에 남아있던 유일한 제약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남는다」는 형식적인 의무뿐이어서 이런 국가들은 공산주의로부터 이탈을 포함한 모든 선택의 「자유」를 확보했다. 따라서 동구의 경제난은 이들 국가가 친시장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사정은 이라크를 비난하고 있는 태도에서 잇불수 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은 완충작용없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전후 예상과는 다르게 석유가가 유지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곤란은 면하고 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데있다.

냉전시대에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지원이 제국주의의 압력에 대한 견제작용을 했지만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국주의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제3세계 착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제국주의간 갈등과 전쟁불가피성을 이야기했던 레닌의 예측과는 다르게 긴밀한 협력속에서 이라크라는 작은 나라를 파괴한 실례이다.

맺는말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 구상속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을 맺은 이번 걸프전쟁은 자국의 세계지배에있어 일정정도의 위기감을 갖게 될 때는 노골적인 군사적 힘을 비롯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언제든지 패권주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군사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미국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상당히 쇠퇴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가 얼마나 지속될지 미지수이다. 미국의 학계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번 전쟁이 미국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을 의미한다.

이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전쟁과 피를 뼈아 먹고 성장한다」 이말은 자본주의 경제의 병폭한 논리를 말해주며 사회주의 경제처럼 「탱크를 녹여 보습을 만들」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불타는 유정

글 싣는 차례

1. 걸프전쟁의 본질과 전개양상
2. 전후 세계질서 재편과정
3. 아랍민족문제와 전후 중동권역 재편양상
4. 미국의 중장도전략과 세계구도
5. 걸프전쟁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득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부시가 다국적군에게 지시하는 장면 〈사진:타임〉

미국 **걸프전후 단기적 주도권 확보 장기적 쇠퇴**

소련 **미노선 협조통해 경기침체·민족분규 해결하려**

워릭대학교 하계 영어연수에 관한 안내

1. 연수조건
   - ○연수과목:영어
   - ○연수장소:영국 THE UNIVERSITY OF WARWICK
   - ○연수기간:1991년 6월30일~8월11일(43일간)
   - ○수업시간:주당 24시간(주말제외)
   - ○반 편 성:영어시험성적에 따라 등급별 배치
   - ○성적평가:워릭대에서 성적 및 등급 부여—본교 및 본인에게 통보
2. 경비 : $5,569
   - ○신청료 $50
   - ○수업료 $990
   - ○건강보험료 $50
   - ○교제비 $50
   - ○숙식비 $1,600
   - ○수속관리비 $250
   - ○기숙사예비비 $
   - ○항공료 $1,262
   - ○Tour $1,317
   - 단, 연수경비는 최종연원 확정후 조정
3. 학생선발
   - ○선발대상:본교 재학생으로 소속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35명
   - ○지원기간:1991. 3. 12~4. 19
   - ○지원서 및 안내서 배부:서울 -용인캠퍼스 학생처
   - ○지원서 접수:서울 -용인캠퍼스 학생처
   - ○선발절차:
     1차: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접 후 추천(지원서란 기재)
     2차:면접(추후 개별 통보)
4. 학점인정
   1)인정과목 및 학점
   - ○워릭대에서 소정과정 이수후 취득한 영어성적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선택, 제2영어, 교양영어 또는 자유선택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 ○인정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한다.
   -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표상에 "해외 연수영어"로 성적이 등재된다.
   - ○성적불량이나 출석 미달로 성적이 안나왔을 경우에도 성적표상에 "F"로 등재된다.

   2)인정시기 및 수강신청
   - ○학점은 1991학년도 제1학기에 인정한다.
   - ○2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연수 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 범위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학점인정 절차
   - ○본교에서의 학점인정및 성적부여는 워릭대학에서 평가한 연수학생의 성적및 등급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5. 기타사항
   -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한 여권 및 비자 발급편게는 학생처에서 일괄 담당한다.
   - ○연수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인솔책임자의 재량으로 도중 귀국 시킨다.

영국워릭대 Relth교수 내한 설명회 개최

일시:1991. 3. 27(수) 14:00~15:30

장소:시청각 210호

소련민족문제에 대한 고찰(하)

소련내 소수 민족문제는 크레믈린궁 앞 붉은 광장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진:보도연감〉

외대논단

조 영 희
〈대학원 동구지역 학과 석사과정〉

크레믈린의 대응

소련은 1백20여개의민족으로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인구 약 2억9천만명의 소련은 72%의 슬라브계 민족(러시아인 52%, 우크라이나인 16%, 백러시아인 4%)과 10%의 이슬람계 민족(우즈베크인, 카자흐인, 쿠르크멘인, 키르키스인등) 또한 5%의 자카프카스지방 민족(그루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등)과 2%의 발트3국민족(에스토니아인,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련은 이상의 민족을 중심으로 15개의 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9개의 자치구역, 48개의 민족관구를 형성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족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열린 여론수렴의 광장으로 민족문제를 공개화시켰을 뿐이다.

1988년 2월에 발생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문제」로 아제르바이잔인과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의 충돌이 내전으로 까지 비화되면서 소련 공산당이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이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 6월, 19차 당대회에서는 기존의 정치체제 내에서 민족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족문제를 다룰 것임을 결의했다.

1989년 헌법개정 때에 인민대표총회가 창설되고 최고 소비에트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민족문제가 전연방차원으로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1989년 9월19일~20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련은 민족문제에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으로 접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민족문제의 원인을 첫째, 대탄압 둘째,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경제발전 셋째, 민족의 발전과 친화시이 모순의 관계가 분석되지 않음 넷째, 인구문제로 인한 노동기회의 부족 등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페레스트로이카의 민족정책은 정치적으로 각 공화국의 주권을 확대하고 중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연방과 공화국의 권리, 상호의무를 법률적으로 구체화시켰다. 한편 연방 및 사회·관리기관에 공화국들의 보다 폭넓은 참가를 보장하는 제도적장치를 강구한다는 것을 그 기본골자로 삼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각 기업및 지역의 완전한 독립채산제와 자기자금조달제로의 이행및 중앙집권화적인 행정적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구성 공화국의 토지·천연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각 공화국의 경제적 주권과 자립을 제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이 밖에 민족문화와 민족언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여의성향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각 공화국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한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며 연방의 국제적 약속을 침해하지 않는 한 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공화국중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키스, 타지크, 투르크멘등 8개공화국만이 초안을 서명하고 있다. 이것은 8개 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공화국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련은 얼마간 더욱 국가적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좀 더 튼튼한 토대위에서 조만간 「연방」으로 재건될 것이다.

한반도 민족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주의권의 변화, 유럽에서의 군축과 평화노선이 국제적 조건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왔던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찰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겠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은 주한미군의 철수, 평화협정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즉 평화구조정착의 계기를 조건적으로 부여해 준다는 측면과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조화될 수 밖에 없는 분단의 국제적 합법화를 의미하는 「교차승인」의 측면을 양면적으로 야기시켜 내고있다. 현재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하여 유동되는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군축, 남북관계의 진전 등 한반도 평화구조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소련에게는 현시기 교차승인을 통해 미국의 지배질서가 구조화되거나 합법화 된다다는 인식이 정책 결정에 지대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갔다면 소련이 주도하는 동북아에서의 일정한 긴장완화와 형식적 측면의 평화구조 정착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질서가 이완되거나 허물어질 것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가설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결국 대 남한 정부 유화정책 즉 교차승인 정책에서 남는 것은 소련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의 상징물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소련은 「새로운 사고」에 기초한 평화공존 이론이 함의하고 있는, 일국적 차원의 개급무장과 세계적 차원의 평화구조정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서 동북아의 평화라는 목표아래 「두개의 한국」을 승인할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자 과제이다. 그것이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 의미이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 의의는 깊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일정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다.

이것의 긍정성을 우리의 정세속에서 현대화시켜내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권의 개혁내지는 동요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파장을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 변혁운동과의 전망속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단호히 맞서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주체적 현실속에 자신의 중심을 두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 사상적 혼돈과 동요를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유화정책으로 탈사회주의화 저지
소련 한반도정책, 분단 고착화내포

햇 글

■에세이 세계사 상·하(백산편집부편)

인류의 오랜 세월에 걸친 자유획득을 위한 노력인 시민혁명에서부터 이책의 세계사는 시작된다.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실상을 구체적 사례속에서 규명해 내고 있으며 인간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의 첨단우주시대를 알기 쉬운 용어로써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해, 환경파괴등 과학의 왜곡된 사용에 대하여 인류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백산서담퍼냄 3천5백원〉

■철학강의·삶, 사회 그리고 과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철학은「식자층만의고급교양」이라는 종래의 편협된 견해를 부정하며 이책은 시작된다. 철학은 역사성, 사회성을 지닌 실천적 삶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삶속에 철학문제를 사회역사적 지평으로 확대인식해야한다고 밝힌다. 1부, 2부에 이어 보다 이른적,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3부에서는 과학적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강의록을 구성하고 있다.

〈동녘퍼냄 5천원〉

■선진노동자의 이름으로(이진경외지음)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향한 민중민주주의진영의 사상과 실천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남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게될 민중혁명과 과학적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강한 신념과 명백한 논리로 풍환해내고 있으며 법정투쟁기록들들을 바탕으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나무퍼냄 3천5백원〉

앎 터

■대중학술강좌

대학원및 학부생들의 건강한 학문적 요구는 기존의 교과과정속에서는 해결될수 없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15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진보적 강좌를 신설·개최한다.

△일시—3월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5시(첫날만 수요일 오후5시)

△장소—추후공고

△참가대상—관심있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

△수강료—주제별 5천원

△신청일자—3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주제—1. 한국사회 지배구조와 민주변혁의 흐름Ⅰ(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2. 한국사회 지배구조와 민주변혁의 흐름Ⅱ (김동춘·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3. 북한정치의 움직임 이해(이종석·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4.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정대화·한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문의는 대학원 총학생회사무실(961—4446)

군산복합체

소금상자

미소데탕의 냉전체제를 발판으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등장한 신조어(新造語)로서 이는 방대한 군사조직과 거대한 순수산업간의 상호의존체제를 지칭한다.

고도의 자본주의 형태인 제국주의는 발달된 경제기구와 군사기구를 통에 업고 평화논리가 지속될 때의 재고군수품을 처분하여 국가경제를 지탱하기위해 국지전등을 조장, 세계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게 된다.

이는 최근 걸프전으로 인한 각국 군수산업의 호황, 주가폭등 등의 모습에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산업의 70% 이상이 군수산업체로 구성되어있는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반원전이론 입문서

세계 최악의 참사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사태로 전세계의 토양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원전 직원의 기형아 출산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 존재하는 1천여기의 핵폭탄문제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구실로 인류의 숨통을 조이는 원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간된 「위험한 이야기」,(히로세 다카시지은·푸른산 퍼냄)는 원자력발전의 실체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파악·서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현 우리사회와 흡사한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거의 전부하다시피한 「반원전이론」을 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 책에 게재된 글은 저자가 각종 강연회와 학습회를 순례하며 역설한 내용들을 집약·정리한 것으로 강연회의 「자료부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며 원전사태의 참상과 실체, 그리고 원전뒤에 도사리고 있는 자본의 논리를 뿌리채 파헤쳐 보이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이」를 대상으로 파악하여 알기쉽게 저술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1장은 지난 1986년 「죽음의 재」를 유럽전역과 한국에까지 휘날렸던 체르노빌 대참사를 이야기한다. 실제 방출된 방사능량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표, 조작된 방사능 유포범위만을 발표하던 자들에 대해 객관적 과학이론을 토대로 진실을 추적해내고 있다.

2장은 1장의 이론적인 측면보다 드러나 보이는 사실에 논의를 맞추어 전개시키고 있다. 원폭과 원전이 실화를 보이면서부터 체르노빌사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사라져야 했는가, 어떻게 생태계가 파괴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장은 「가공할」 원전사태가 인간의 실수 혹은 기상에 의해 작은 섬나라인 일본에 빌어질 경우를 예측한 자상시나리오이다. 36시간만에 전국토가 오염될 것이며 수도권에서만 3천만명의 목숨이 스러질 것이라는 끔찍한 추산을 해낸다. 이러한 피해는 한국도 마찬가지의 피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할 것이다.

결국 3장까지 읽다보면 독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는 것일까?」 4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저자는 「원전」을 찬양하며 에너지위기를 내세워 이웃에게 언제라도 방사능을 뒤집어 쓰게 할 수 있는 「이윤」에 눈이 먼 자들에 맞서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위에서 보이지는 본문의 4단구성으로 인해 더욱 그 값을 인정 받는다.

체르노빌이라는 구체적 실례를 통해 원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원전으로 인한 인간정서와 생태계파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여 결국 원전은 자본주의 생산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속되며 인간의 삶을 갉아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준다.

이와같은 치밀한 구성과 설득력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알기 쉬운 서술은 이 책을 반핵·반원전운동의 입문서·필독서로 가능케 하기에 충분하다.

〈학술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하계 영어연수에 관한 안내

1. 연수조건

○연수과목:영어
○연수장소:미국 UNIVERSITY OF AT BERKELEY
○연수기간:1991년 7월7일 8월25일(50일간)
○수업시간:주당 24—26시간(주말제외)
○반 편 성:영어시험성적에 따라 등급별 배치
○성적평가:U.C.B대에서 성적 및 등급 부여 본교및 본인에게 통보

2. 경비:$5,080

○신청료	$50
○수업료	$990
○건강보험료	$50
○교재비	$50
○숙식비	$1,600
○수속관리비	$250
○기숙사예비비	$
○항공료	$890
○Tour	$1,200

단, 연수경비는 최종인원 확정 후 조정

3. 학생선발

○선발대상:본교 재학생으로 소속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선발인원:35명
○지원기간:1991. 3.12—4.19
○지원서 및 안내서 배부:서울·용인캠퍼스 학생처
○지원서 접수:서울·용인캠퍼스 학생처
○선발절차:
1차: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접 후 추천(지원서란 기재)
2차:면접(추후 개별 통보)

4. 학점인정

1)인정과목 및 학점
○U.C.B대에서 소정과정 이수 후 취득한 영어성적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선택, 제2영어, 교양영어 또는 자유선택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안정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한다.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표상에 "해외 연수영어"로 성적이 등재된다.
○성적불량이나 출석 미달로 성적이 안나왔을 경우에도 성적표상에 "1"로 등재된다.
2)인정시기 및 수강신청
○학점은 1991학년도 제2학기에 인정한다.
○2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연수학점을 뺀 나머지 학점 범위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학점인정 절차
○본교에서의 학점인정및 성적부여는 U.C.B대학에서 평가한 연수학생의 성적및 등급에 대한 본교 "학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5. 기타사항

○최종선발된 학생은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최종선발된 학생에 대한 여권 및 비자 발급관계는 학생처에서 일괄 담당한다.
○연수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인솔책임자의 제량으로 도중 귀국 시킨다.

민주로 반민주를 심판한다

지방의회 선거통해 민주대연합 기초 강화

선거보이콧,민민운 분열과 탈정치 의식 우려

수서특혜분양 사건이 연일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4일 지자체분리선거 방침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3월26일 기초지방의회 선거와 5~6월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다시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엔 「선거보이콧」도 불사하겠다던 야당이 일단 선거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각 정당, 제야, 민민운 진영의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 대한 전술적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수서비리, 물가폭등 등으로 민중생존권이 파탄적인 상황에서 민민운 진영이 얼마만큼 강고하게 반민자당 투쟁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기초 지방의회 선거실시의 배경및 직접적 계기

친미파쇼세력이 기존의 제도적 장치, 정치적 조건 속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하기란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쿠데타등과 같이 「비합법적 수단으로」 집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국민들의 반민자당 투쟁이 거대하게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친미파쇼세력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합법적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 정치적 조건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야 할 처지에 있다. 이미 민자당정권이 지방자치제 구성을 획책하게 된 것도 결국은 「재집권」에 필요한 제도적 틀, 정치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민자당정권은 지방의회선거일시, 지방의회구성을 통하여 친여지역유지등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내각제개헌의 정당성을 획책하려 했다.

91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터진 「수서지역특혜분양사건」은 민자당정권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민자당정권은 「수서비리사건」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권력재편기의 과정에서 재집권에 필요한 정치적,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조건을 계속 강화해야 하는 이중적 장애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민자당정권은 자신들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기초지방의회선거를 「통일주체대의원선거」 식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서비리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희석시키고 아울러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완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기선거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민자당의 기본선거전술

민자당 정권은 「공명선거」라는 명분하에 지방의회선거법이라는 악법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반민자당투쟁, 선거투쟁을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된다는 명분하에 수서비리규탄투쟁등을 철저히 탄압하고 민자당후보낙선투쟁등 반민자당투쟁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반민자당 투쟁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공법위한 대중투쟁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진:중앙일보)

향후 정치일정을 살펴 민자당은 정치자금을 비축하고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자신들의 최대무기인 자금살포 및 금권선거를 어느 정도 자제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자당은 민주진영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위축시키는 것—즉, 민주진영의 선거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선거전술로 할 수 밖에 없다. 친여후보의 친민자당성향을 최대한 은폐시키고 선거자체가 민주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대결로 대치되기 보다는 인물대결로 이끌어야 유리한 민자당정권은 입후보자가 민자대 반민자로 구분되는 것을 막고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후보선택이 반민자당 대중투쟁과 결합되는 것을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투쟁목표 및 대응방안

지방의회선거는 그 성격상 단순한 지역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자당의 장기집권음모에서 지방의회선거가 위치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때 민족민주진영의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대응도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민주대연합의 완성이라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수서비리등 6공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 반민자당투쟁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민족민주진영은 기초의회 선거투쟁을 민주대연합결성에 필요한 기초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대중투쟁뿐만 아니라 후보전술에서도 일정하게 야당과의 공동보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족민주진영의 선거투쟁은 집회, 선전전등 반민자당 대중투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누가 "민자당후보이고 민주후보인가를 명확히 부각시켜 후보선택이 반민자당투쟁의 확대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후보전술에서는 되도록이면 독자후보를 내세우면서 야당세력과의 후보단일화를 꾀해야 한다. 후보전술은 민자당 및 친민자당 후보를 폭로해내고 당선저지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축이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주체적 역량상 완전한 보이콧전술은 불가능하다. 보이콧운동은 확실한 성과가 없을 때는 민자당 후보 지지운동만을 소극적으로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민주진영의 정치적 주도성의 축소와 고립을 노출시키는 한계만 낳을 수 있다.

또한, 선거참여를 결정한 야당과의 제휴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 민주대연합을 중·장기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또 확실한 효과가 없을 때는 세대교체론에 활용될 수도 있다. 즉 보이콧운동이 민자당의 참담한 패배를 낳지 못하고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을 초래할때, 「신TK」집단은 민자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기성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만으로 위장하면서, 자신들을 부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보이콧운동은 민자당에 대한 대중적 공격이라는 초점을 흐리게 하고 보수야권까지 포함한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되면 국민들의 정치적 혐오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민족민주진영은 민자당의 기도분쇄에 역점을 두되, 현 역량에 맞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반민자당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민자당후보 낙선투쟁에 주력하고 민주진영 후보 및 제한적인 민족민주진영 후보 당선투쟁을 보조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대연합의 기초 강화,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역량 강화및 지방의회선거의 허구성 폭로와 장기집권음모 폭로를 부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임 무 영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국장〉

총노동대 총자본의 한판승부

—'91임투의 주·객관적 정세요인과 향후 전망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작년1월 전노협 결성과 그리고 하반기 대공장노조의 민주화는 노동운동의 질적 비약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도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전에 구축된 조직적 기반위에서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임금인상투쟁(이하 임투)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우조선의 골리앗 투쟁과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투쟁을 모색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들의 대량구속을 시발점으로 올봄 임투의 막이 올랐다.

제2의 철의 기지, 골리앗 크레인에서 농성하는 대우조선 노동자들. (사진:한겨레신문)

걸프전 이용 위기의식 조장, 임금억제 강요

공동임투 전선 강화가 올임투의 승패좌우

연대회의 간부들의 구속의에도 평화방송사태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정권과 자본측은 임투의 예봉을 미리 꺾겠다는 속셈으로 「초기 강경진압」으로 맞서고 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탄압외에도 올해 임투는 걸프전쟁 및 수서택지특혜분양사건, 지방의회선거등 복잡다난한 정세들로 인해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정도다.

특히 올해초 발발했던 걸프전쟁은 경제위기설유포및 국민들의 안보의식 조장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등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조장은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국내 유가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 단행으로 현실화 되었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한자리수 억제」정책 및 노·사간 분규의 자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쟁에 따른 유가상승및 경제침체 요인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그것은 전쟁발발 이후 실제유가가 오히려 폭락한 상황이나 산유국들의 증산과,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세로 석유공급의 차질 우려가 사라졌던 것을 보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허구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경제위기설 유포뒤에 숨어있는 본질은 오히려 전쟁위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사전에 노동계급의 임투등 각종 민중생존권투쟁을 고립화시켜 내년대 있었다. 또한 걸프전을 이용해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해 대미 기술종속을 심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르과이라운드협상 결렬 이후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산업구조 재조정은 각 생산공장의 해고, 감원,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뿐 아니라 고용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걸국 걸프전쟁을 이용한 정부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의 본질은 물가폭등에 따른 민중생존권의 파탄으로 인해 올해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반정부 투쟁을 야기할 것이다.

금년 상반기 임투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객관적 정세요인은 지자체 선거이다. 3월26일로 확정된 지방의회 선거일정이 임투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을 놓고 볼때 그것은 임투전선의 약화와 또한 수서택지특혜분양 사건으로 인한 기층 민중들의 분노를 부마하려는 술책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선거공간이라는 것이 다양한 여론분출의 장임과 함께 올해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중생존권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민중들의 정치적 불만과 요구, 그리고 반정부 투쟁등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치·경제적 요인들 외에도 92, 93년 권력재편기를 맞아 현 정권은 물리적 탄압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꾀할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노동통제를 일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개악에 주력할 것이다. 보다 조직화된 정권·자본의 공동대응방안은 「무노동 무임금」고수와 「경영인사권 수호」 논리하에 노동조합활동공간 축소, 그리고 민주화된 대기업 노조에 대해 끊임없는 탄압과 개량화 정책을 일삼을 것이다.

지난해 전노협의 결성과 함께 자본측의 경단협 결성등으로 이제는 개별사업장대 개별자본가가 아닌 총노동대 총자본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올 임투는 전노협·연대회의·업종노조연맹등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노동진영의 공동임투전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 임투는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노동법 개악저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민중생존권을 억압하는 물가정책등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더 나아가 「전민중적 과제」이기도 하다.

즉 올 임투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물가폭등으로 인한 전세값 월세값 인상등 주거문제의 불안정성을 폭로하는 제반 경제투쟁도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정치계급의식의 고양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것은 전국단위노조들의 요구를 집약시켜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공동임투전술을 통일시켜내고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식 경제성장론을 앞세우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의 이념공세에 맞서 민중운동의 성장발전 이라는 임투의 정당성을 획득하는것은 정치선전부대로서 노동계급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반기 투쟁의 주요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수서택지특혜분양 사건의 경우 노동계급 및 민민진영에서는 현정권의 총체적인 비리공세를 통해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것을, 오히려 역희전할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외곽의 물가폭등은 공공요금의 인상과 정부의 부분별한 동화중앙과 함께 부동산부기가 그 주범임을 선전해냄과 동시에 민중생존권 악화를 가져오는 근본요인이 바로 미·노정권의 본질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올 상반기 지자체 실시를 앞둔 현 정권이 노동자들의 임투를 초기강경진압하려는 의도에서도 드러나듯 전국 경기침전의 말판을 구축하려는 음모를 폭로해내고 전 노동자들은 구심으로 민민자당 전선에 광범위한 「민중적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박현숙 기자〉

사·조·동·조·이·필·요·없·는·세·상·을·만·들·자

수서비리 폭로로 끝장났어야 할 정권이 아직 다 막히지 않은 자신의 숨통을 기초의회 선거를 통해 다시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되찾은 지자제를 그들에게 헌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곪아터진 정권의 명줄을 살리는데 말입니다.

나가서 외칩시다.
서울에서,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걸프전으로 인한 유가인상 예측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폐업·감원을 통한 노동운동 탄압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미국에 의해 반대되고 있고 통일인사 구속은 갈수록 늘어나고 분단의 지름길인 단독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씩을대로 씩어 더이상 치유책이 없는 정권이 말입니다.

부패한 정권 못생긴 정권이 스스로 불리나는 것 보았습니까. 이제는 「퇴진」이 아니라 타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일의 선봉장은 청년학생 여러분입니다.

행사명:수서비리은폐정권규탄 국민대회
때 :1991년 3월16일(토)
곳 :서울및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주 최: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 국민연합

외 대 학 보

문화 논평

여성문화운동

일하는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로 전화돼야

—「여성노동자 전진대회」를 통해 본 여성문화운동

「낮에는 밤에 나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선 밤짓고, 빨래하고, 자식 돌보고…」이런 모습을 닮연한 어머니의 상으로 인식하기를 강요받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차별과 억압이라는 굴레가 「여성은 이따의 반」이라는 주장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차별을 없애고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여성들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두고 계속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여기에서는 노동하는 여성—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로 마련된 행사가 있다. 지난 10일(일)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열린 「여성노동자전진대회」가 그것이다.

「한국 여성노동자회」와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서 슬라이드 상영과 촌극 공연·여성노래 발표가 그 주내용을 이루었고,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여성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한 슬라이드 「전진하는 여성노동자」는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담은 내용으로 일제시대 방직·정미공업에 진출한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 70년대 독재권력에 대항하여 임금인상과 차별임금철폐투쟁으로 시작되어 80년대에는 이 요구가 더욱 본격화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공연이 여성노동자의 투쟁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후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는 미흡한 점이 보였다.

또 구로지역 「푸른이 놀이방」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한 촌극 「어머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에게 보호받을 권리를」은 기혼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위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데, 필요하면서도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기혼여성과 이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통해 탁아시설이 절박히 요구되는 이유를 해명하고 있다. 어머니들의 서투르면서도 풍부한 감정이 엿보이는 연기가 절박한 상황을 잘 묘사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후 노동자노래단의 「올해의 여성노래」발표가 있었는데 구로 노동자문화회에서 노랫말을 짓고, 안해경·김호철·노동자노래단이 곡을 붙인 이 대부분의 노래는 여성노동자가 착취당하며 차별받는 현실을 담고 있었다.

새로이 창작된 여성노래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혼여성들의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를 다룬 내용의 노래로 「이제 나 엄마되어 아이 곁에 누워도/온종일 고된 노동 소용도 없어/밤새 하얀 눈물 마르지 않네」에서 보여지는 노랫말과 함께 고요하게 흐르는 가락은, 89년 여성노동자노래였던 「딸들아, 일어나라」에서 보였던 힘찬 투쟁의 의지가 많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했다.

슬라이드·촌극·노래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본 이번 행사를 여성문화운동 차원에서 이해해 보려 한다.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는 문화라면 여성문화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문화운동은 아직까지 몇몇 활동가를 주축으로 한 여성단체를 통해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단체들의 문화운동은 참된 노동자들의 문화—노동자가 직접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화—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여성문화운동이 아직은 그 시행에 있어 소수집단의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의 비중이 더 크고, 내용도 앞으로 채워나가야할부분이많이보인다.

이제 여성문화운동은 단순히 여성문제를 인식시키는 차원이 아닌 연대와 투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적발전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제한된 단체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문화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자는 공장에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노동과 부딪히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여성문화는 바로 이들의 삶을 반영하면서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여성문화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결코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리라.

〈문화부〉

인터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노래와 극을 통해 선전하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노동자 전진대회」의 기획을 맡은 윤혜련씨를 만나

공단이 줄비하게 들어서 있어 탁한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곳, 바로 닫힌 공장문을 열면 금새 수많은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같은 느낌이 드는 구로지역이다. 「여성노동자 전진대회」의 기획을 맡은 윤혜련(한국 여성노동자회 회원)씨를 만난 곳은 구로지역에 자리한 한국여성 노동자회의 좁은 사무실이었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라며 분주한 준비의 일손을 잠깐 멈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국 여성노동자회는 87년에 조직되어 생산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문화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저희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문화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성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매월 여성의 날에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연극·영화를 관람하게 함으로해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심각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들의 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조금씩 「차별임금」의 부당성을 확고히 인식해 가고,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깨달아 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한 이번 행사도 이러한 맥락하에서 슬라이드 상영·촌극공연·노래발표등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을 가져도 그것이 평생직장이 될 수 없고, 승진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노래와 극을 통해 보여주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며 이런 문화활동을 통한 선전의 필요성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선전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차별임금 해소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적음을 유씨는 안타까와 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더 깊게 뿌리내렸으면 합니다』라는 그녀의 바램처럼 문화행사를 통한 선전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여성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열기가 막한 공장연기를 헤치고 타오를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황효순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198) 블로킹—가로막기, 공격차단

지난 주 농구 경기 용어를 우리말로 고쳐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배구 경기 용어를 우리말로 고쳐 보았다

이웃 오브 포지션—자리 반칙, 블로킹 아웃—가로막기 실패, 블로킹 포인트—가로막기 득점, 블로킹—가로막기, 공격차단, 점프 토스—찍어올리기, 서브—메겨넣기, 서브 오더—메김순서, 리시브—받기, 풋 포올트—뒷줄밟기 반칙, 네트 오버—그물 넘기, 네트—그물, 네트텃치—그물 닿기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⑰

교정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는 새내기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 따사로운 봄. 새내기를 맞기 위한 동아리족들의 발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동아리방을 찾아 간 새내기가 공공 잠겨진 문을 뒤로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이게 웬일인니까?

안으로 잠기고 기기에다 큰 자물쇠까지 달려 이중으로 채워진 우리의 동아리방. 무엇이 외대인들을 이토록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물건이 없이었다며 울상이 된 학우들의 하소연도 들리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가 두려워 문을 공공 걸어잠그고, 마음까지 닫아 버렸다면, 이제 새 봄의 새 빛깔로 우리들 마음을 환히 밝혀 봅시다.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 귀여운 새내기를 맞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마음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활짝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만날 때, 외대는 정이 넘치는 아늑한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화부〉

밀착취재

신입생 맞이 강습및 공연을 점검한다

신입생 유치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개강과 더불어 91학번 신입생들을 맞아, 환영하는 선배재학생들의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이 대자보, 공연, 강습등 교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에 신입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적절 움직임들이 어떤 특징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반응 및 호응도를 알아보았다.

지난 3월5일부터 8일까지 5시이후 서울 캠퍼스 노천극장은 쌩과리, 장구, 북등 풍물소리로 가득찼다. 풍물 동아리 「민속악 놀이반(이하 민놀반)」에서 주최하는 풍물강습이 열린 것이다. 매일 15명의 학우들이 노천극장 상단에 원형으로 둘러앉아 풍물의 가락을 익히며, 서투른 몸짓을 교정하며 흥에 겨워하고 있는 모습은 학교 분위기조차도 흥겹게 하였다.

3월7일(목) 6시경. 쌀쌀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선배와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다. 민놀반 선배의 진행과 강의에 따라, 그리고 쌩과리를 치는 상쇠의 가락을 따라 선반(몸짓)을 배웠는데 이날 처음 참석한 신입생 2명도 주위를 보아가며 조심조심 따라 한다. 처음엔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배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지난 5일(화)부터 이 풍물강습에 참여한 신입생들이다. 그러나 제법 익숙한 몸놀림으로 전신을 움직이며 추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나 있다. 40여분정도 「까치머리」등 기초적인 손놀림, 발놀림을 배운후 자진모리 장단의 노래를 부른다.

그후 간단한 놀이를 통해 친목을 다지며 동아리 방으로 자리를 옮겨 평가와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91학번 신입생들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날이 갈수록 알아나간다는 것이 기쁘다』라는 소감을 피력한다. 한 신입생은 『우리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모습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며 발전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한다.

신입생을 위한 이러한 강습과 공연등은 서울캠퍼스 「민속악 놀이반」 「새물결」의 「목요노래 배우기」외에도 「소소리패」와 「백박」의 풍물 강습등 활기차게 준비되어 실행되고 있고 용인캠퍼스도 「흔울」과 「신명소리」등의 풍물강습과(科)문화패로서는 불이과 문화패 「어울」에서 풍물, 춤, 노래 강습등을 하고 있다.

또한 단대 차원의 신입생들을 위한 이와 같은 모임들에 대해 인문대 문화부장 서승룡(사학·3)군은 『지난 2학기 문화부의 활동을 토대로 4월초에 풍물 강습과 5월1일 노래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5월에 있을 대동제 기간동안 그간의 과정을 총화하여 마당극을 공연할 예정입니다』라며 신입생들을 위한 이러한 모임들을 구체적인 사업들로 입안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한데 이러한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강습이나 공연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거부감을 느끼거나 접해 볼 기회가 적었던 풍물, 탈춤등의 분야와 파급력이 큰 노래부문, 즉 기존에 쉽게 접했던 대중가요 대신 민중의 건강한 정서를 담은 민중가요 부문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입생들이 전의 생활에서 향유하기 어려웠던 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강습이나 공연들이 신입생이 제발로 찾아 오기를 기다리던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되었다는 점과 비공개적으로 동아리방이나 학회방 위주로 모임을 가져 나가는 것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여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동아리, 과 문화패, 단대 문화패 단위의 「단순 소개」 차원이나 「신입생 유치(?)」차원이 아닌 문화패 스스로 외대 문화를 중요로이 일궈내기 위해 학우들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강습이나 공연 같은 놀이동아리 「새물결」 회장인 김대용(동양·중국어 87)군의 말처럼 단순한 「동아리(또는 과 문화패, 학회)소개 차원」을 넘어 건강한 대학문화로서의 풍부한 내용성을 채워 내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하에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학우들의 문화적 요구와?정서를 반영하는 총체적인 결과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연희 기자〉

학내문화패, 공개적 만남의 자리긍정적 평가 받아

좋은 책 몇권을 소개합니다

조국 상·하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문학

시련과 고난, 분단의 아픔이 점철된 우리 조국의 역사가 「북조선 인민」이었던 김진계씨의 구술을 통해 형상화된 작품이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젖어 아직까지도 북한을 「적」으로 여길지도 모르는 새내기들에게 「북한도 사람이 사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현장 문학사퍼냄 4천원〉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평화시장 재단사였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씨의 전기이다.

이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한다.

〈돌베개퍼냄 4천원〉

철학의 기초이론

—편집부 엮음

변증법적 유물론을 쉽게 이해하도록 쓴 철학입문서로서 복희 새내기들이 왜곡되게 배워왔던 부분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백산서당퍼냄 2천 5백원〉

껍데기를 벗고서

—이영희의 지음

사회 민주인사들이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주는 글 모음집이다.

이전까지 가졌던 대학에 대한 환상을 깨고 대학에서 무엇을 할것인지, 어떻게 살것인지의 고민을 던져주는 책으로 백기완, 이영희, 정운영, 권인숙씨등이 공동집필 하였다.

〈동녘퍼냄 4천원〉

경제학의 기초이론

—편집부 엮음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 축인 경제 원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입문서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을 쉽게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사회의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백산서당퍼냄 2천 5백원〉

바로 보는 우리 역사 1·2

—구로역사연구소 지음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80년대까지 「권력자」의 관점이 아닌 압박받고 탄압받던 민중의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책이다.

고등학교때까지 받아왔던 주입식 역사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거름퍼냄 4천 2백원〉

외대발전 그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학교의 주인은 재단(?) 대학의 구심은 학생(!)

사립학교법등 사학자주성 침해 가능 높아

학내 민주화 위해 모든 인자 결합 필요

보도기획

대학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총장임명권과 민주교수 재임용명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교원임용제 등의 독소조항인 사립학교법은, 재단에 있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대학발전을 추구하는 교수·학생·직원에게는 또 한번 부수어야할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법 및 대학평가인정제등 대학에 현존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교수·직원·동문 등 학내인자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원자주화의 깊은 멀고 험하지만, 학원의 주체인 교수·학생·직원 또 이들과 연계된 동문·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나갈 때, 비로소 외대발전은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Ⅰ. 국내 사립대학의 현실

대학은 진리의 탐구를 위하여 교수·학생·직원을 주 구성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자율적 공동체로서 심오한 이론과 실제가 연구됨은 물론 국가·사회및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각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는 온당히 수렴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내 사립대학의 현실은,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축소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문교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마련한, 대학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된 「대학교육평가인정제」의 실시로 각 대학의 민주화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인식하여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온 교육주체들에게, 그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하게 심의·상정·통과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자체가 표명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의 질적수준과 연구, 봉사활동, 학생, 교수, 시설등을 종합평가 해 사회적 평판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써 이는 교수 뿐만 아니라 학생·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인자들에게 대학의 제 임무인 사회민주화나 대학운영의 민주화 노력을 막으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Ⅱ. 학내 구성원의 제 역할

이러한 현하 사립대학의 급박한 현실속에서 학원의 구성주체인 교수·학생·직원의 제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의 본래 목적이 진보적 학문을 수용하고 탐구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라 했을 때, 교수는 학문사상의 연구에 몰두하며 이를 밑받침할 수 있는 행정분야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해야 하며, 직원은 학사운영및 행정에 있어 배태되는 관료주의·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학생은 학문·사상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실천력을 갖고, 교수학생·직원이 학원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본 사립학교법

임시국회에서 개악된 사립학교법	
·재단이 교수 임면권 장악(53조 2)	·재단 이사회의 총·학장 임명권 장악(53조 1)
·교수 징계제심의 문교부 이관(67조)	—기간 각대학에서 확보한 총·학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효화 한다.
·교수임명기간을 재단편인이 임의적으로 유정할 수 있다. (53조 2)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총장 취임 허용(54조 3)
·명예퇴직 교수제 신설(60조 3)	·재단이사회내 친·인척 비율회 상향조정(21조 2) 현재 1/3에서 2/5로 규정
·임시교원 임용제 도입(54조 4)	·사무직원 임면권의 이사회로의 이양(70조 2)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의 심각한 불이익과 임시교원제의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직 겸임 허용(23조 4)
·대학평의원회 설치(26조 2)	·재단이사회의 제사임대권 인정(28조 1)
·대학회계 예·결산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신설(29조 4, 31조 2)	

이럐에도 대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대학의 이해·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동문 또는 학부모들이다. 90년에 유급조치까지 내려졌던 세종대의 경우 대학운영에 있어 교수·직원·학생뿐만 아니라 동문·학부모·대학원총학생회·재야 등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대학자치기구를 건설, 각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에 상응하는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사립학교법이나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로 야기될 수많은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 학내 제 구성인자들과 함께 학원의 자주성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 학생회다. 타 학교의 상황에서도 보여지듯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 학생들이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Ⅲ. 학생회 강화의 필요성

학원의 자주화를 위하여 학생대중의 역할이 크다는 학원의 특수성을 지적한것처럼, 학우대중을 하나로 결집·총화시켜내는 학생회의 확대·발전·강화 또한 사뭇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7년 이후 학우대중을 기초로한 학생회건설에 많은 논의나 노력들이 계속되었으나 실제로 아직까지 학우들을 학생회운영의 주체로, 대학운영의 한 주인으로서 동참시킬만한 역량을 지닌 학생회는 몇개교가 되지 않으며 현재도 학생회의 강화와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그리고 학내 제 구성원의 필요에 기초한, 대학운영의 민주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자주화투쟁이 촉발되었던 조선·세종·동국대의 경우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과 학원자주화를 진행함에 있어 직원·교수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우우대중만큼 크나큰 장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교의 대학평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대학사회의 자율화 추구현상에 편승한 학생활동의 급격한 변화와 학생운동의 이념화추세에서 학생과의 활동은 그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활동의 계획, 시행, 평가단계의 지도를 위해서는 지도교수·지도위원회체제 뿐만 아니라 본대학 전임교수전원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송·신문 등의 업무내용이나 운영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가 공동참여하는 활동이 시급한 것이다」란 내용이 적혀있다.

Ⅳ. 맺음말

지난 90년 2학기 용인캠퍼스 학자합의 사안중 「재단은 모든 학사운여에 있어 불간섭을 합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하 사립대학들에 공히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독소인 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큰의미를 지닌다.

타 대학의 경우 민주적 총장·대학자치기구 건설에 있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본교는 등록금투쟁을 위시로 하여 제반 학원자주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올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보여준 직원·교수 및 대학당국의 태도는 학원의 민주화에 역행할 따름이다. 따라서 학원자주화의 새 날을 열기 위한 구성원들의 제 역할과 임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나영 기자〉

생활안내 6 추가수강신청 재수강

●「××야, 그 교수님 학점 잘주신다더라. 어떠니, 그 강의로 이번에 변경시킬 생각없니?」

「그런데 추가수강신청 기간이 언제부터니? 이왕이면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낫겠지」

학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강의 내용이나 과목의 성격보다는 맘좋은(?) 교수님을 찾기 마련이고, 이렇게 소문난 강의시간은 외자를 들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만원을 이룬다.

1차 수강신청은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기간에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오는 3월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있는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변경」기간이 남아있는데, 수강신청이나 신청과목 정정 및 확인을 할 학우들은 추가수강신청 당일 소속학과 학과장실에서 강의시간표와 수강신청용 OMR카드를 배부받으면 된다. OMR표기 부분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수강신청카드를 접기나 구기지 말고 낙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학점이 ×점 구멍났는데 재수강신청 최대 이수학점이 얼마인지 모르겠구, 잘못하면 재질학기 들어야 하겠는데」

당초 신청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하위급을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수강 성적은 상위등급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초 취득한 성적은 삭제되고 해당 학년, 학기에 그 성적이 기재된다. 또한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시 소속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재수강 교과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규 수강 신청 OMR카드에도 재수강 여부란에 표기해야 하며, 비고란에 「재수강」표시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과목 이중취득으로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는 점이다.

신청과목은 해당 학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당초 취득성적은 삭제되지 않는다. (단, 단강과목은 예외)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으로 없어진 교과목은 해당 학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사 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되 상이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다리 다섯번째, 90년 하반기 및 91년 상반기 취업동향

취업 현황

지난 2월27일 우리 대학 「90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교정을 온통사람의 물결로 채우며 급기야 『외대가 데모한 줄 알았다』는 어느 택시운전기사아저씨의 말처럼 외대앞은 사람과 자동차가 뒤범벅되어 지나다니기조차 힘든 형편이었다. 이 많은 졸업생의 취업이 가능할까? 「졸업정원제」의 마지막 입대아인 이들이 사회에서 차지할 부분은 남아 있는 것일까? 신입생들로 인한 활기찬 사람의 물결을 느끼면서 다시금 취업에 대한 불안함이 고개를 든다.

90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규모를 감안할 때, 금년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자신의 그룹을 축소하거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6그룹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추천으로 소규모 채용만 했을 했을뿐이다. 그나마 보험은행·단자회사 정도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많은 졸업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계의 경우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90년은 국내외의 여건으로 대졸자 인력의 수요창출이 감소되자 대부분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을 축소, 「취업전선에 냉기류가 흘렀다」고 표현될 정도다.

이렇게 한차례의 「입사열풍」은 지났으나 90년 하반기에 취업을 못했던 학생이나 취업을 하였더라도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도 취업에 관해 고민하며 취직시험에 골몰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우리 주위에 많다. 그러나 91년 상반기 취업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아무개 취업정보지의 「국내 1백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새해경제전망 조사」실태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중원계획을 잡고 있는 기업은 56%선에 그쳤으며 그중 10%이상의 인원증가를 고려한 기업은 6%선에 머물렀고 자연감소인원만 충원할 회사가 44%에 다다른다.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으로는 생산직 38.8%, 기술연구직 31.1%, 영업직 19.4%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10.7%로 나타났다. 이를 보자면 사무관리직의 고용증가율은 지난해 17.4%에서 10.7%로 크게 줄어 인문·사회계 대졸자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본교 경우 대부분의 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이라 취업을 앞둔 3·4학년생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취업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임무와 과제

「어떻게 살 것인가」「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또는 지금 현재에도 부단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게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개인단독의 것이아니라 사회로 환원되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구체적 전망을 잡을 때, 단순히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사르게 건정해버리는 경우는 분명 잘못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전면에 제기되는 것이 바로 「애국적사회진출」이다. 애국적사회진출이란 대학생 스스로가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여 구체적 전망을 가지고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진출, 생활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이다.

본교에도 현재, 양캠퍼스에 애국적사회진출을 위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 여학생대표기구에도 「취업대책위원회」란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사회진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진이 공유하며, 자신이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러망인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글싣는 차례

1. 학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학생회
2. 민주적 교원유치를 위한 방안모색
3. 경영합리화와 직원문제
4. 대학민주화에 기여할 대학원의 역할
5. 대학후원사업의 문제점과 동문·학부모의 참여방법
6. 무능한 재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재학생과정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2개반)50명, 일본어과(1개반) 25명

2. 교육일정
1) 기 간:1991. 4. 15(월)—1991. 6. 21(금) (10주)
2) 교 육 시 간:1일3시간 (18:30—21:20)
3) 주수업일수:5일 (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본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선발방법:등록순 마감

5. 제출서류:등록원서 및 사진1매

6. 원서교부·접수:1991. 3. 18(월)—1991. 3. 29(금)외국어연수원 교학과

7. 수 강 료:135,000원(월 54,000원 상당)일시납

8. 등록장소: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 기 타
1)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년 4회 실시하며, 학생들의 호응도에 따라 모집학과의 조정이 가능함.
2)교재는 등록마감후 우편안내에 따라 개별 구입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연수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961—4174, 4175

1991년 3월 일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외 국 어 연 수 원

학생생활연구소 안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개인상담: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문제를 (정서장애, 진로문제, 대인관계)에 대하여 상담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집단상담:10명 내외로 구성된 집단원들이 1주에 1~2번 만나 전문가의 도움하에 의사소통방법, 정정처리법, 표현력등의 훈련을 받아 원만한 인간관계형성 및 자기성장에 꼭 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상담:유학절차, 외국에서의 생활적응, 학교과사등 유학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 정보를 드립니다.
심리검사: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돕기위해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해석해 드립니다.
·자료실운영:취업, 대학원, 유학등 진료에 관한 자료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

(도움 받을 일)
↓
(학생생활연구소 방문)
↓
(시간약속)
↓
(상담) (심리검사) (자료실이용)
↓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용시간:월~금:(10시부터~5시까지)

*이용시간

상담
·심리상담 서울(월·수 2,3교시)
용인(월 5,6,7교시)
·유학상담 (수 3,4교시/목 5교시)

심리검사
적성및 지능 서울(금 7,8교시)
용인(화 6,7교시)
·그외 검사는 항시 이용 가능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교양강좌:정신건강, 자기개발, 진로모색등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합니다.
·간행물 발간:「외대소식」지 발간
대학생활안내 책자발간
심리극 공연:개인의 내적인 문제를 연극적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을 새발견하고 보다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91년 등록금투쟁 모범 사례

등록금, 내가 참여하여 결정한다

상층 간부만의 이해가 되어버린 등투
등록금은 국가·학교·학생이 공동부담해야

심층분석

현재 대학내에서는 제만「학자시위중 등록금의 문제로 학교측과 학생측이 맞서고 있다

본교 또한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충장섭 정기동상, 계부치·학생처장실 폐쇄등으로 그 양상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올해의 본교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에 대한 이러한 사태들을 다른 대학의 등투의 원칙과 상황을 검검하고자 한다.

경희대

1990년 11월21일 경인지역 기획실장 모임에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을 15~18%로 공동보조할 것을 밝혔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는 수원캠퍼스에서 12월5일 등록금 15~18% 인상의 부당성에 관한 서명운동을 펼쳐, 1천2백여명의 서명지를 받았으며 11일 에·경산 심의위원회 산하 등록금책정소위원회(이하 등책소위)를 구성,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재단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의 확충, 학교측의 예산공개와 정확한 분석으로 민주적인 등록금책정등 등록금책정에 임하는 원칙제시및 학교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24일(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신입생 등록금을 18%인상, 일방적인 통보로 1차 협상이 결렬되었고 91년 1월9일(수), 제1차 간부회의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 간부학교를 열어, 등무진만에 관한 사전논의의 조직화를 잘 이끌어 냈으며 이후 현재까지 치밀한 조사작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6일(수), 학교측의 18%인상이 고수되고 있지만 5차협상까지 마친 경희대의 등무는, 학교측으로부터 완전하게 합법성을 인정받는 등책소위가 중심이 되어 사무금을 노련넘 금융노조를과의 노학연대의 전개를, 언론사, 국회의원등을 통한 자료인수를 하여 최초의 학생예산편성안의 작성, 합리적 예산편성과 학교재무구조의 변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원칙들을 제시, 타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

건국대

지난 12월부터 2월26일(화)까지 70여일간 16차례에 걸쳐서 전행된 건국대학교의 등록금협상은 13.5%의 인상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등록금협상을 위한 대표기구로 「등록금책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해 12월19일부터 협상을 시작,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확충문제, 학생회비 통합고지와 9월 가예산학의문제, 장학금지급확대와 종합장의통신 축문제가 논의되었다.

11월부터 총학간부들의 단대순회간담회 개최와 간부대회, 설문조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수렴으로 방증무쟁의 한계성을 극복하려 했으나 보고대회와 대자보 작업을 필첬을 뿐 상충증심의 협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월24일(일)의 신입생 등록금의 가책정이후 학교·학생측은 5인씩의 「소위원회」를 구성 26일(화)재단의 수익금 공개, 9월 가예산 학의, 종합강의 등 신축학의 등 8개의 합의점을 찾았다. 이중 92년도 예산을 10월로 신규사업, 10월말 추경예산, 11월초 가예산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점은 재단의 수입내역서의 공개로 앞으로 등무를 준비하는데 체계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우들의 의견을 일정정도 수렴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지난 3월6일 용인캠퍼스 전체학대운영회의 모습

서강대

본교는 물론 앞서 기술한 경희대, 건국대이외의 대부분 대학들이 방증 등무를 준비한 것에 반해 서강대의 경우, 등록금 협상 준비에 있어 모범적인 방법을 창출해냈다.

91년 등록금 협의는 지난해 9월부터 협의 일정과 목표를 잡는 등 학자무 내부준비를 하였고 10월중에는 학생회의 간부교양과 학변, 과 토론회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91등록금 책정」이라는 모토(motto)로 90년 2학기부터 총학이 실시한 「학생요구안작성」 작업은 분임토의, 설문지조사 방법과 중회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아리연합회와 복학생협의회등 각 기구에서도 요구안이 작성되었다.

이에 학자후 재정·복지분과장인 서요왕군은 「학생요구안작성」작업의 목적에 대해 「학내 교육여건 개선과 생활복지환경개선, 학사제도와 교과과정 개선, 재원확보의 방향 설정에 있다」고 말한다.

등무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최대한 집약·집중된 투쟁인 만큼, 시기에 있어서 서강대의 등록금 협상 준비는 11월초 선거가 치루어지는 시기부터였으며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 학우들의 이해가 걸린 등무를 시기적절하게 공감대를 형성, 대중적으로·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각과 등록금 책정 대표자들로 구성된 「'91년 등록금 책정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11월9일에 등행위 첫 모임을 가졌다.

이후 협상대표를 선정하여 대학당국 3인, 제단 상임이사, 노조대표 2인, 대학원 학생회 2인, 학부 4인등 총12인중 1인이 선정되지 못해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월3일 예비회의로부터 시작하여 12월24일 11차 회의에 거치면서, 3주동안 협상을 벌었는데 2주동안은 학생·학교측의 요구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진전시키는 과정이었고, 1주동안은 재원확보를 위해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의 확충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12월28일 17.1%의 등록금 인상율 확정등 가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서강대 학생회는 「가합의안」의 처리를 위해 과총회와 분임토의를 실시, 가합의에 대하여 1차평가를 받고 2차로 설문지조사작업 또는 총투표의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학교측과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본교 91년도 등무는 상충간부들이 높은 교양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과총회를 통한 운영회의에서는 인준여부결정, 또는 방증에 등록금협상을 위한 「협상」에 치우쳐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등무의 원칙인 「공개의 원칙, 학우대중과 함께 한다는 대중무쟁의 원칙」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오류들이 발생, 결과적으로 양 총학의 의견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캠퍼스 학생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공동무쟁방안도 학우들에게 공개되어야, 이후 등무에 있어 학우대중을 학생회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김상권 기자〉

◇강의실 실태

강의를 할 수 없는 강의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난방시설 미비및 방음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용인캠퍼스는 강의실이 부족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캠퍼스는 공기의 협소함으로 인해 사설상 강의동 신축공사는 불가능하지만, 협소한 공간속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기위한 방음및 난방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 공간이 작으므로 강의실 확대는 어렵겠지만, 방음시설이나 마이크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집중할 수 없다』고 우정숙(서양·독어2)양은 지적한다. 도로를 옆에 끼고 있는 대학원 건물에서 서양이 대학 2천여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양과목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외부소음에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크의 잦은 고장은 강의시간이 단축되거나 강의가 중단되어야 하는 어려움까지 낳고 있어 강의환경개선이 필요되어진다. 한편 시청각건물,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하군단건물은 단지 석유난로만의 설치로 적어도 강의실 체감온도가 낮은 4월까지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89년도에 동구 5개이과—콜란드이, 루마니아이, 체코이, 유고슬로비아이, 헝가리이—의 신설로 인한 학생수의 자연증가 때문에, 그 동안에도 문제시 되었던 강의실 부족 심각성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빈강의실의 부족으로 복도에 흩어져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과 타강의에 주는 소란함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과, 단대 행사및 이학분야에 있어서 초청을 통한 강연시, 여유공간의 부족으로 대학당국과 마찰을 빚은 후에야 정규 강의시간을 비우고 행사 및 강연장소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의환경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처에서 마련한 「외대중기발전계획중 시설및 복지부분」에 있어서 서울캠퍼스

는 시청각건물,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하군단건물의 난방·스팀시설 완비및 학생회측과의 합의를 통해 운해안에 고시만을 학교밖으로 이전하여 강의실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용인캠퍼스는 옥 도서관 완공후 1개의 강의동을 건설, 부족한 강의실을 늘리려는 가안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전산실 확대, 도서관 옥상 휴게실 설치, 교문 개조, 고시만 이전, 강의실 확보, 취업정보연구실 설치 등 학생후생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대학당국과 올해 협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인캠퍼스 오석훈(인문·사학4)군은 『지금 통학을 버스승차 문제, 공사중인 도서관 문제 등으로 강의동 건설을 방존할 경우 학우들의 애로점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인식하여 대학당국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건립후에 강의동 신축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서 부실한 강의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학생회측과 대학당국과의 합의 과정은 무고불 일어지만 대학당국의 외대중기발전계획중 대부분의 독단적 처상과 학생회측의 학우들의견수렴에 있어서 빚은 시간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강의환경개선책은 우선 방음설비를 하는 것이다. 고시만 이전 후의 강의실 확보는 시간상의 요구뿐만이 아닌 학교밖의 장소 물색등 실시됨지도 모르는 막연함이 현재의 시급함을 충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용인캠퍼스의 경우에도 강의동 건설 시업은 도서관 완공이 되는 즉시 강의동의 신축에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를 보일수 있도록 학우들이 경험하여 이미한 가인들이 성효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홍명의 기자〉

최후의 만찬

○…이산가족 찾기 이래 민초들의 심금을 울리는 모자 상봉이 있어 크로니클자 땅을 치며 통곡하네.

사연인즉, 87년 아들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부르짖으며 분노에 살던 한 어머니, 아픈 가슴 억제치 못하고 한강에 몸을 던져 먼저간 아들과 저승에서 만났다고.

전 민초의 이름으로 경고하나니 모자 모두 삼킨 군사독재는 심판의 광장에서 망(亡)과 상봉할 날이 다가왔음을 각인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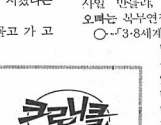
○…홍산들 엎드리면 코닿을 때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제자리니 초조한 마음 가실 길이 없어.

알고 봤더니, 배부른 사장, 사모님들의 편안한 승차감을 드리기(?) 위해, 장주—황산 배출터갔 가는 길에 골프장의 전임로를 새로이 단장하느라 일방통행만 시켰다는 것.

골프장에 소를 몰고 가 고랄파고 물 뿌리고 벌써 뿌려 민초들 배부르게 만듬이 어떨지.

○…한반도 시멘의 복풍작전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는 이길도 없겠지?

어물쩡어물쩡 구멍이 뚫뚫이 가듯 말꼬리를 슬려대던 미국, 목청높여 외친 그 한마디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식거부」의 앙심선언(?).



진달래 백두능은 온원수만 흐른다는데 유체꽃 한라능은 핵배개꽃만 흐르겠구녀.

원자폭탄 만들려, 원자미사일 만들려, 군대간 우리 오빠는 북부연장해야겠네.

○…「3·8세계이성의 날」을 맞아 모(某)홍산이 상을 만았다기에 크로니클자 만가운 마음으로 달려가 본 즉, 이상상 수상자는 다름아닌 「동일의 꽃」 임수경선배로, 백두 진달래 한라 유체꽃의 하나됨을 위한 영광의 징정을 높이 평가한 것이 이유인바.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는 모든 홍산들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수경선배 구출하고 통일되는 그 날을 목전에 둔듯.

○…크로니클자, 삼가 말씀드리옵기 부끄러운 사건이 황산에서 벌어져 한 홍산이 혼쭐이 났다는데

사연인즉, 지난 6일 동아리대표자수련회와 관련, 최장덕과의 면담을 미리년 동연회장에게 학생처직원이 요청을 해부있다는 것 다행히 다음날 사과를 해 가벼이나 일었으나 동아리 홍산들은 전정시킬다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곤에 지친 학생처의 형편 이해하나,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함을 각인하시압

좋은게 좋은데

비둘기철판

이문벌

■노래는 즐거워!

…"우리의 노래가 그늘진 땅에 한줄 햇볕 될 수 있다면"…

저희 노래모임 새물결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30분에 외대 학우들에게 배우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91학번, 90학번 신입 회원도 모집합니다

〈새물결〉

■개강모임(3학년)

·때:3월12일(화) 오후4시30분
·곳:중국관
·회비:4천원+α

〈독일어과〉

■주인을 찾습니다

·이름:서동욱(70. 12. 24일생)
·물품:지갑및 신분증
*이 광고를 보신 직후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03호)로 오십시오.

■새내기 모집

작은 인식과 실천을 함께 할 새내기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라도 오세요.

〈여성문제 연구회〉

■신입회원 선발

·협회홍보일:3월18일(월) 오후5시30분 상경대 3401호
·원서접수기간:3월1일(금)~3월19일(화)
·1차시험:3월19일(화) 「독해, 작문, L/C」
·해당언어:전 외국어

〈학생통역협회〉

왕산골

■협조의 말

저희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식당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우 여러분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대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밥류:6백원→7백원
·면류:5백원→6백원

〈대학생활협동조합〉

■공책을 팝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 공동구매 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공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곳:학생회관 구내문방구
·값:4백50원

〈대학생활협동조합〉

■모집!!

조국의 미래를 함께 할 91학번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또 하나의 조국 북녘 땅에 대한 옳바른 이해와 조국의 하나됨을 위한 연극, 토론, 실천을 함께해 나갈 의지가 있는 모든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곳:학생회관 3층 324호

〈통일문제연구회 한겨레사랑모임〉

■총회개최

자주적인 러시아어과 여학생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많은 노력과 학우들의 참여로 자리를 빛내주세요. 남학우, 여학우 모두 환영합니다.

·때:3월14일(목) 오후5시30분
·곳:교양학관 312호

〈제1대 러시아어과 여학생회〉

동문회

왕산

수성고

·때:3월14일(목) 오후7시
·곳:대원식당(종로예식장 옆)
·회비:7천원+α

이천 향우회

·때:3월13일(수) 오후5시
·곳:이문정동
*복학생도 환영합니다

이문

검정고시

·때:3월14일(목) 오후5시
·곳:이문상정탑

〈비둘기철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PBC·KBS·MBC 자주권수호투쟁 취재

더이상 앵무새가 될 수 없다

「방송민주화」를 외치며 「가톨릭의 양심」을 지키려던 PBC 노조원들의 투쟁이 다소 소강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BS·MBC 양 방송사가 「방송자주권회복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KBS 서기원사장 퇴진운동이후 정권의 거대한 물리력에 주춤하던 방송사의 「방송민주화투쟁」이 PBC사태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으며 나선 것이다.

90년 4월, 첫 진파를 말사하게된 PBC는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부각된 가톨릭의 민주화를 위한 발언권을 반영하려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개국이전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함세웅신부를 대신해 89년 10월 PBC사장으로 정식취임해온 조덕현사장(육군중령출신)신부에 의해 보도·편성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에 PBC노조는 즉각 반발대응에 나서면서, 노조원들을 주축으로 「전교조행사」 「재벌의 부동산투기실태」 「광주항쟁 10주년 기념행사」등의 정치·사회비판 보도를 계속 했다. 이러한 보도를 막아보려는 조사장의 조치, 즉 「보도순화지시」 「노조가입기자들의 부당인사」 등은 PBC노조측의 더 큰 반발을 유도했고, 급기야 올해 1월 18일 노조는 「민주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을 강행했다. PBC노조가 업무에 장애가 가지않는 범위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업무방해」를 구실로 파업 6일만에 공권력투입을 요청했고 파업참가자전원이 연행되는 「제2의 KBS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PBC노조(위원장·조상기)측은 『정권과 결탁한 가톨릭내 보수대연합세력이 민주언론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어떠한 탄압과 회생에도 굴하지 않고 구속동지구출과 해고된 동지의 원직복직을 위해, 그리고 「민주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발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KBS노조와 MBC노조는 「PBC사태」를 정권의 「방송재장악음모」로 규정, 정권의 무력진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PBC노조지원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KBS노조는 지난해 4월 「KBS사태」때 부터 요구해온 「이용 서기원사장·노정팔이사장 퇴진」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고, 정권의 「KBS제장악음모」도 선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24일 회사측의 공권력투입 요청으로 연행된 PBC노조원들 (사진:「말」지 3월호)

MBC역시, 전보적 시사프로 없는 일이며, 정권이 무리하게 서울방송을 조기 개국하겠다는 것은 차기선거에서 친정부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의도라 덧붙인다.

정·좌익사상·미화·정치불신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사파방송명령을 내리는 등 제작·편성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저녁뉴스」앵커를 맡고있는 손석희(MBC 노조대지고 있습니다」라며 『현상적으로는 방송민주화와 관련,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정권의 방송의 개입과 간섭은 변함이 없으며, 지금도 방송제작음모가 교묘히 이뤄지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손씨는 또 『현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로 민간방송을 난립시켜, 광고메체표를 통한 시청률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방송의 질을 격하시키려 합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또 그는 이같은 정부의 「방송재장악음모」에 대한 대응책으로, MBC노조는 그것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청자조직」을 건설하려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노조원들은 국민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맺는다.

「방송민주화」에 관해 KBS노조의 한 조합원이 언급한 『워터게이트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닉슨대통령을 해임토록 했듯이, 우리의 언론도 수서사건의 진상을 폭로해서 민자당의 현

평방사태는 민주언론을 탄압하려는 방송재장악 음모

3개 방송국 연대투쟁으로 방송탄압 음모 분쇄해야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와 관련, KBS노조 김점석대변인은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5공정권이 세운 「사영방송의 공영화」방침을 6공정권이 다시금 「공영방송의 사영화」로 그 방침을 번복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방송을 사영화하여 특정재벌에게 위임한 뒤 방송을 정권의 의도대로 주무르려는 음모』라고 밝힌다. 그는 또 『방송장악과 장기집권음모의 일환인 노정권의 「대KBS작전구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라고 폭로한다. 실제로 정부는 KBS의 조직을 분리하기 위해 「영상사업단과 제작지원단등 2개의 자(子)회사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그것은 정권이 분리·무력화를 통해 KBS노조를 와해해버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KBS작전구도」의 다른 하나는 민방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라할 수 있다. 노정권은 선거전술의 하나로 설립한 「서울방송」이 아직 준비단계마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의 송신시설을 임대해서 3월중 개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대변인은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사영방송에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은 생각할 수도 그랭인 「PD수첩」의 제작진들이 다수가 교체되는가 하면, 최근 방영된 드라마 「땀」에 관해, 방송심의위원회가 「만미감의 협력위원회 부간사」씨는 『우리의 방송민주화투쟁은 사내의 구조악과 지배이데올로기로 인해 알게 모르게 제한되어 판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란 말이, 지금 세 방송국 노조원들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다.

〈이희웅 기자〉

기자의 눈

새끼호랑이 이빨뽑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고 씌여진 큰 현판은 본사에서 쫓겨난 평화방송노동조합원들의 결연한 자세, 당찬 목소리들과 어우러진 「평화방송노조농성장」이라고 씌여진 문구에 비해 아주 작아 보였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진정한 민주언론사로의 평화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평화방송 이수영 노조원의 말은 그간의 사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비록 본사에서 쫓겨나 언노련 사무실을 빌어 50여일째 계속되는 농성을 벌이고는 있지만 노조원들의 모습은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사무실 곳곳에 「구속자를 석방하고 원직복직시켜라」 「조덕현사장등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편성보도기능을 정상화 하라」는 등의 구호문구들이 붙은 모습 또한 노조원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90년 4월15일 방송사 개국이래로 정권비판적 내용의 뉴스해설들이 강한 어조로 보도된데에 대한 보복조치는 상시 출입해온 안기부직원과 조덕현사장과의 면담에서부터 구성되었다. 재벌들의 땅투기 실상보도,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음모 보도등에 대한 당시 공보처장관이었던 최병렬(현 노동부장관)장관의 수차에 걸친 보도순화경고에서도 평화방송 언론탄압이 계획적 각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KBS, MBC의 방송민주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에 의한 노조탄압, 이어진 방송법개악의 국회날치기 통과, 또한 숱한 특혜의문을 남긴 민영방송의 출범을 승인한 현정권은 차기정권의 재장출을 위해 다시금 정권의 시녀역을 모든 언론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영노조원은 『92, 93년 대권을 향한 현정권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언론의 입을 막아 내느냐에 그 승패가 좌우됩니다. 새끼 호랑이에 불과한 평화방송을 무참히 짓밟은 것은 이들의 언론재장악을 위한 최일한 게 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평화방송은 「복음화·민주화·인간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조덕현사장은 이중 「민주화」부분을 삭제하여 민주언론의 사명을 비웠다. 지난달 가톨릭은 이 시대의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선도적으로 정의와 진리를 구현해 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이젠 권력에 영합하여 스스로 진보이기를 거부하며 권력지향적 보수진영이고자 한다. 『지난날의 진보적 가톨릭과 민주언론의 만남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만남은 최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수영노조원의 말은 가톨릭계에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금 5공시절의 악랄한 언론통제의 음모를 꾸미는 현정권의 언론재장악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미희 기자〉

반전, 비핵, 평화군축을 위하여 ②

미입대자속출, 시국범 강제징집

지난 1월30일 이종남 국방부장관은 병역자원이 남아돌아 「미입대자 건설현장 투입」 「보충역 산업체 의무근무」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병역자원이 남아돌아」우선 입영원을 제출한 자들이 1년이나 입영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국관련 구속자와 방위산업체 특혜보충역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출소직전이나 해고직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노동자중에는 특례복무 5년구간중 3일을 남겨둔채 해고되어 곧바로 징집된에도 있다.

이것은 6공식 강제징집의 한 예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에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을 보더라도 6공에서 자행되는 강제징집의 실상을 알수있다. 84년 5월 이전에는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군징집이 면제되던 것이 여러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3월에는 실형 2년미만자는 모두 징집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사법부의 의도적인 판결과 그리고 일반사범과 시국관련 사범과의 차등의 문제도 크다. 일반, 폭행범등은 실형 2년미만의 경우라도 군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입영순위를 후위로 조정하여 사실상 징집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국관련 구속자들은 출소전에 영장을 발부하거나 출소후 10일이면 입대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병역처분 기준이다. 또한 병역특례자인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 즉시, 또는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도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징집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만 후보생(ROTC·RNTC)의 경우 후보생 제적과 동시에 학생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된다.

해양대의 경우 졸업후 선박생활을 해야하므로 대학생, 부관후보생, 상선사관이라는 세가지 신분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교당국과 학군단은 밀월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학원사찰을 자행하고 있다. 때문에 해양대생들은 작년 2년기부터 학원자주화투쟁속에 강제징집 철폐투쟁도 함께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합법을 가장한 6공식 강제징집은 대국민적인 선전및 폭로와 징집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투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 바로 「강제징집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준비모임」(이하 공대위)이다.

공대위는 지난89년 9월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투쟁과 11월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 점거투쟁을 했던 학생들이 대거출소하면서 강제징집 철폐에 대한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공대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인중(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중 구속)씨는 『저희들이 공대위를 꾸리면서까지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합법의 탈을 쓴 6공식 강제징집을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폭로해내며, 강제징집 대상자들의 인권보호 그리고 넓게는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군민주화를 위한 투쟁이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군축 투쟁에 복무한다는 생각에서 입니다』라고 공대위의 의의를 밝힌다.

공대위는 「음식량 후원사업회」와도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경남 지역도 발족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작년 제4기 총감석 전대협 의장이 올해부터 전대협 사업의 하나로 벌이겠다던 「군복무 단축투쟁」은 현재 전대협 산하 학추위 사업의 업무분으로 계획되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대협의 한 사무원은 『올해 학추위 사업중의 하나인 군복무 단축투쟁을 지금까지의 각종 의문사의 진상규명과 청년학생들의 민주화의지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강제징집 철폐 투쟁과 함께 벌여나갈 것입니다』라며 말국 『이러한 투쟁들은 조직동원에 있어서 비핵군축 평화지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6공에서 자행되는 강제징집은 분명 그속에 계산된 의도하에 정치적인 음모가 숨겨있다. 이에대해 김인중씨는 『92, 93년 차기대권을 앞두고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싸워온 청년학생들을 군대로 격리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정치보복적 탄압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수의 조작사건이 증명하듯 결국엔 장기집권을 위한 정권안정화 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6공식 강제징집 대상자는 공대위의 집계에 의한다면 현재 6백여명에 달한다. 그중에 본교출신 강제징집 대상자는 약 20여명이라고 한다.

〈박현숙 기자〉

(노가리의) 희망사항

잘쓰지 못했는데… 내 글도 정말 실어줄까?

글을 모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는 외대인이 있다면 이제 펜을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비워 놓은 지면을 이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득 가득히.

- 흡산의 소리 — 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는 란(2~7매)
- 독자사진, 독자만평
- 문예창작물 — 시·수필·일기·서간문 (각 9매) 서평·영화평·꽁트(각 12매)
-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반민자당, 수서비리 규탄 본격화

16일 각종 사회단체 국민대회 전국에서 개최

"지자제 분리선거는 정권의 부도덕성을 감추려는 것"

오는 16일(토)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국민연합 주최 「수서비리 온폐 정권 퇴진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를 계기로 상반기 반민자당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종 사회단체및 정당과의 연대속에서 진행될 이번 국민대회의 주최측인 국민연합은 대회의 의의와 목표가 △수서특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노태우정권의 부패상을 폭로 규탄하고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민자당의 내각제를 통한 장기집권 음모에 대응하며 △각종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범민주세력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대회와 관련해 서울캠퍼스는 각 단대별로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국산차 마시기 대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수서비리와 지자제분리선거의 본질을 알려갈 신문 광고를 만들 것이며, 다양한 선전작업을 통해 국민대회를 준비할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캠퍼스는 경원대, 대유대등 용인 성남지구 학생들과 함께 지난 7일(목) 성남전역에서 16일 국민대회 홍보와 수서비리, 지자제 분리선거의 본질, 남현진군 죽음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12만장을 배포했으며 오는 14일(목)에는 해방광장에서 「수서비리 온폐 정권 퇴진 국민대회-해국의대 결의대회」를 가질예정이다.

한편 국민대회에 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국형(인문·철학4)군은 『정부가 수서사건의 진상은 덮어둔 채 지자제 분리선거를 3월말로 앞당겨 실시하려는 것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려는 태도』라며 『우리는 16일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반민자당 투쟁을 전개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연대표자회의 개최 1학기 사업일정 논의

용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는 지난 3월6일(수) 학생회관 제5열람실에서 전체 50개 동아리중 40여개 동아리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91년 제1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학기 사업계획 보고및 등록금투쟁 보고, 故)남현진 열사 사인 진상규명, 기타안건 등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 사업 계획은 지난 3월8일(금)부터 9일(토)까지 산정호수에서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3월에는 동연발대식을 28일(목)로, 신입생환영회는 29일(금), 분과장 선거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로 일정을 확정하였다. 4월에는 3월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신규 동아리 등록원을 접수하여 정기대표자회의시 의결 하기로 하였다.

용인 식당 요금 인상돼

11일, 밥 7백원 면 6백원으로

지난 6일(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확대운영회의 측에서 대학생활 협동조합(이하 대생협)의 「식당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11일(월)부터 학생회관식당 음식값이 밥류는 7백원 면류는 6백원으로 각각 1백원씩 인상, 조정되었다.

대생협은 이날 회의에서 90년 2학기 식당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학기 단가가 밥류는 7백32.5원 면류는 3백20.8원이었는데 관매가는 각 6백원, 5백원이여서 결산결과 총 3백5만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최근 물가의 인상으로 더욱 증가될 적자액은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식비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인상안 제출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생협 부조합장 이정민(서학·영어3)군은 『학생회관 식당은 배식공간이 협소한데다 현재 각종 물가의 인상으로 식비가 인상되어도 현저한 식사질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최대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 각종 식당 기자재의 확보에 힘쓰겠다』라며 이후 식사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일반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이문관식당도 오늘(12일)부터 대생협과 동일한 폭으로 식비를 인상했다.

용인도서관 건물공사 90%이상 완성단계

지난 89년 9월28일 착공된 용인캠퍼스 도서관공사가 계단 등 내부공사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번 공사를 담당한 건설주인 정하욱씨는 『지금 90%이상 완성된 도서관 건물공사는 늦어도 5월중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실내 집기공사와 도서 이전작업이 끝날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완공예정일인 7월31일(수)에 맞춰 개관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하욱씨는 『지난 학기 학생대표와 건설감독관이 참석했던 공사 중간점검에서 제시된 세미나실 창크기 등의 문제는 시정을 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올해의 여성」의 어머니 김정은씨

한국이성문제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에 본교 임수경(서학·불어4)양이 뽑혀, 지난 3월8일(금)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여성의 날 기념식」중에 임양의 어머니 김정은씨가 「올해의 여성상」을 대신 수상하였다. 〈강인숙기자〉

용인, 통학버스 요금 올라

교통문제 전반 협의, 조정 예정

용인캠퍼스 지입제 차량및 경기·대원여객 등의 통학버스 교통요금이 인상적용되고 있다.

변경된 요금 사항을 보면 학교에서 동서울구간이 이전4백90원에서 6백원, 잠실5백70원, 사당6백원, 양재5백50원, 성남4백10원, 모현2백원으로, 지난해 학생할인제 폐지로 대폭인상된 이후 올해 정부의 시외버스 요금 인상결정으로 또다시 상향 책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인권복지 위원장 김대민(동학·마인이4)군은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액수』라며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3일(수) 학생, 입자, 대학당국이 참석하게 될 「교통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요금 재조정과 지입제버스 노선변경 등 교통문제 전반을 안건으로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 도서관에 이태리책 기증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지난 3월5일(화)본교 도서관에 스위스대사 에르네스트 글로어(Ernest Gloer)씨 명의로 이태리 문학책 25권을 기증했다.

스위스대사관은 지난해 8월 독일과 프랑스문학책을 본교에 기증한 바 있다.

직원 인사이동, 발령

과장 7명, 주임 4명등 모두 44명

학교측은 지난 3월6일(수) 직원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주요보직발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대신문사 신문과장 김부주간-이승희(전 관리과장) △용인 학생처 학생과장-안병창(전 신문과장) △출판부 출판과장-최재환(전 학적과장) △교무처 학적과장-한천수(전 서울 협람과장) △서울 도서관 열람과장-윤병훈(전 용인학생과장) △대학원교학부사무과장-김전수(전 비서실장) △총무처 관리과장-차병우(전 출판과장) △서울 교무처 학적과 학적주임-신희천(전 용인 열람주임) △용인도서관 열람주임-여수강(전 학적주임) △용인학생처 학생주임-김원호(전 홍보주임) △용인비상계획과주임-임석순(전 용인학생주임) △비서실장 직무대리-박동은(전 서울학생처 취업보도주임)

자민통 구속자 공판 연이어

이번주 5명, 지난주 이희진군석방

지난 학기 자주민주통일(이하 자민통)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단체구성)로 구속되었던 이희진(서양·영어83)군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자민통관련 본교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노광희(스페넨·84)군은 지난 3월8일(금) 서초동 법원에서 공판을 받았고, 13일(수) 박상범(영어·85)군, 15일(금) 최원극(영어·84)·정해준(영어·86)·박희광(영어·83)군 등이 서초경찰서에서 재판계류중 이다. 김동규(무역·85)군은 아직 공판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89년 용인캠퍼스 평양축전 외대 준비위원장이었던 김근태(사회·무역4)군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순천교도소에서 1년6월의 복역을 하고 지난 3월1일(금) 만기출소하였다.

교직원동정

◎김영애교수등 「동남아문학상 작품집」번역, 출간

김영애 (대학이과), 양승윤(마인이4)교수등 본교5명의 교수와 강사가 동남아문학상(The Sonthest Asia Write Award)수상자들의 작품을 번역한 「동남아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집(도서출판 창)」이 지난 2월22일(금) 출판됐다 이 책은 태국의 나핏 껀따이와얀 비롯 작가 19인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학과움직임

◎용인, 중국어과 과회지 「비상」발간예정

용인캠퍼스 중국어과는 과회지 「비상(飛上)」을 4월1일(월)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 이태리어과 연합엠티 가져

서울캠퍼스 이태리어과는 오는 15일·16일(토) 1박2일간 포천군 산정호수에서 연합엠티를 갖는다. 또한 과신문 「해방(Liberazione)」 8호를 13일(수) 발간할 예정이다.

동아리 소식

◎서울, 「얼소리」 단소강습회 열어

서울캠퍼스 동아리 「얼소리」는 3월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학생회관 4층 「얼소리」방에서 단소강습회를 갖는다.

◎용인, 연극반 연결 「불가불가」공연 준비

용인캠퍼스 연극 동아리 「연결」에서 3월20일(수)부터 22일까지(금) 3일간 자연대강당에서 이원화씨 원작 「불가불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용인, 무선반 「햄」 공개운용회 개최

용인캠퍼스 아마튜어 무선반 햄(HAM)에서는 신입생및 재학생들에게 무선반 홍보를 위해 학생회관 옆마당에서 3월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공개운용회를 갖는다.

이사람

『도서관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한다거나 복지후생관을 만든다는 복지사항 몇가지를 약속받는 것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등록금책정에 있어서는 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복지사항은 그속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조정위원회(이하 등조위)에 참여한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경하(동양·중국어4)군의 말이다.

이번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은 용인캠퍼스가 15.53%인상안을 인준하는 것과 서울캠퍼스가 지난 3월7일(목)학생처, 재무처와 폐쇄하는 것으로 입장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양캠퍼스 총학측의 단결되지 못한 것 같은 모습뒤에는 대학당국의 불성실한 태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등조위를 두달동안 13차까지 했지만, 대학당국의 대도는 언제나 말뱀형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각 주차별 세부지출항목과 91년 예산안 자료제출 요구에도 「아직 작성이 안됐다」 「학생들에게 보여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자세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등록금액수는 방학중 등조위를 통해 학생, 교수, 직원, 대학당국 4자가 합의하는 형태에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양인출학과의 가합의안을 가지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지 하였다.

『대학당국의 태도는 언제나 말뱀형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캠퍼스 등조위 학생대표 김경하군을 만나〉

이에 대해 김군은 『4자 합의에 의해 확정, 고지되야할 것을 용인총학측이 수용했다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킴은 양캠퍼스 분열을 조장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라며 『용인캠퍼스 총학이 「학교 발전계획」에 의거한 등록금인상안 합의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이번 대학당국의 행동은 양캠퍼스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가합의안인데도 마저 용인학생회측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본 것처럼 하여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주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등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학원자주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것과,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문·왕산학생 모두가 전(全)외대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군은 이 말을 학생 모두가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환 기자〉

서울 외대 교육방송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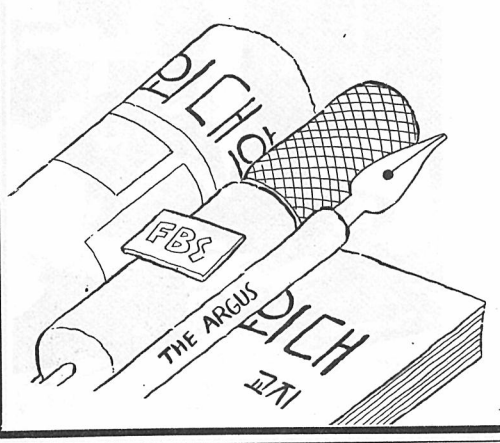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아침	8:30	아침의 산책과 뉴스 네트워크				
	9:00	뉴스 네트워크				
점심	12:25	Pop Parade	Request 대행진	라디91	FBS PUNCH	FBS 종합뉴스
	1:00	기자칼럼		주먹을 아침 사랑의독설	내일을 위한노래	
		뉴스네트워크				
오후	4:35	Music Cocktail	연합통신 마니피카세트	기자인터뷰	대륙탐방	그날이있는 음악 그리고 그림
				광대의고연	FBS논단	
	5:30	하오의 Classic	FBS Drama	광인 수험	FBS실험실	하이라이트

＊영화상영안내(3월12일(화)~18일(월))

영화평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12일(화)	죽은시인의 사회 (화·목요일 오후 1시에만 상영합니다)	침시꽃 당신
13일(수)		우전아랑
14일(목)		칵테일(Cocktail)
15일(금)		그날이후(The day After)
18일(월)		온행밤이와 아빠와 나
상영시간 및 장소	시청각 교육원 영사실(210호)	매일오후2시, 이문학관 비데오룸(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대 언론협의회 각 사 수습모집



■외대학보 제45기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외대 91학번
·원서접수마감:3월15일(금)
·모집인원:일반 기자 ○○명, 사진·만화기자 각 ○명
·전형방법:1차 필기시험(서평, 영화평, 신문평 중 2가지 선택) 2차 면접시험
·전형일자:3월19일(화)~3월22일(금)까지 4일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고 3월23일(토)에 최종 면접시험 실시

■서울 FBS 제43기 수습국원 모집

·응시자격:서울 캠퍼스 91학번
·모집부문:제작부(PD), 보도부(Rep), 아나운서부(Ann), 기술부(Eng)
·원서접수 마감:3월11일(월)
·전형방법:1차 실부 면접(3월11일), 2차 필기시험(3월12일)
—시사, 상식 공동
—제작부:음악·작문
—보도부:논문, 음성테스트
—아나운서부:국어 음성테스트
3차최종 면접시험(3월14일)

■용인 FBS 제11기 수습국원 모집

·응시자격:외대 용인 캠퍼스 91학번
·원서접수마감:3월14일(목)
·전형일시:3월14일(목) 오후5시30분
·시험장소:이문학관 207호(본 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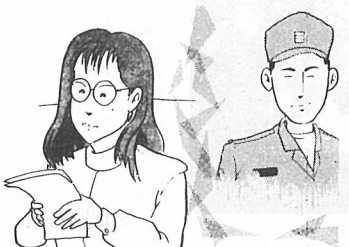
■외대 교지편집위원회 제28기 수습위원 모집

·응시자격:외대 91학번
·원서접수마감:3월20일
·전형방법:1차 필기시험(3월21일), 2차 면접시험(3월23일)

■The Argus 제47기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외대 91학번
·전형일시:3월14일(목)
·시험전형: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원서접수마감:3월14일(목)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3월4일 월요일
휴우~
오늘이 개강날이야? 종강날이야?

기대와 확신에 찬 개획들을 잔뜩 짊어지고 시작한 하루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앞에서 불투명해지거나 어느덧 마음속은 회의와 불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하기 시작했다.

자연은 겨울을 마감하고 봄으로 가려하는데 아직 꽁꽁 얼어 붙려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은 나에게 시작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어렵고 지난한 투쟁속을 헤짐고 다녀야만 했던 방학동안의 힘겨웠던 날들로 나를 몰아갔다.

긴 겨울방학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뇌로 길게만 느껴졌다. 2월의 비일정속에서도 묵묵 나면 자리잡았던 나의 위치에 대한, 가깝게는 내일에 대한 고민이 파고들곤 했다. 우리의 진실에 대한 몸부림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나를 주춤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는 더욱더 날 옥죄려했다.

고(故) 남현진 열사의 장례식과 삼오제를 끝내고 「어떤 새로움」만을 꿈꾸다 맞이한 개강날이 이렇게 무겁고 심난함으로 다가옴을 줄이야.

학생회관 휴게실에 파려된 고(故)남현진 열사의 빈소가 쉴 공간을 차지해 버린 침입자로 되어 버린듯한 느낌을 받으며 명수당에 빙둘러 한 학기를 이야기하며 너무도 천진만만하게 웃어 제끼는 저 새내기들의 모습에서, 「아/ 조국의 현실을 알게 한 대학은 나에게 너무나도 넓은 마음과 힘겨운 고민들을 요구하는구나」하는 한숨 섞인 회의가 온몸으로 번져옴을 느꼈다.

모현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에, 축 처진 내 어깨에 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취방 안으로 들어가니 「군사우편」이라는 거대한(?)도장이 찍힌 편지가 놓여 있다. 한 단어 한 단어 많은 의미를 담으려 한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뜨거워져 갔다.

몇주일 전 부대에 면회 갔을 때 애써 힘든 내색을 안하며 날 도리어 비판해주던 후배 너석이 날 또한번 어쩔줄 모르게 만드는구나.

〈…항상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섰지 실천이 따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속에서 자조적인 웃음밖에 나올 수 없었고, 거대한 힘에 짓눌려 자기의 주체를 찾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안일한 사람들에 한번 울고, 자기가 처한 현실의 부당성과, 그들의 교묘한 술책과 기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또 한번 울곤 합니다.

결국 지금의 내가 택한 길은 나 하나만이라도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을 더욱 높이고 언젠가는 힘껏 날 수 있도록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 살자고 마음먹기도 하지만 그럴때마다 난 또 다시 일어서 가는 나 자신의 양심과 순수를 찾아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렵고, 나를 둘러싼 주위로부터 한계를 느낄 때마다 많은 선배 열사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만들어 나가요. 역사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이진 현실속에서 마음의 이상을 찾아 열심히 살아갑시다〉

편지를 읽으며 내 머리속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되어 갔다. 오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항상 나약한 나를 그나마도 지탱시켜주던 그 자그마한 힘이 어떤 것임을.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바로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을 그 애의 눈과 마음을 생각하며 91년, 다시 오지 않을 이 봄, 우리에게 다가왔던 겨울 동안의 아픔들이 이 조국의 척박함을 조금이라도 적셔 왔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민주를 부르는 이여, 통일을 외치는 이여,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에게 너무도 많은 칭찬과 또한 비판으로 그대를 지키고 싶군요. 내가 혼들릴때 미래를 이야기했고 이제 그대의 애정어린 글로 나는 많은 용기를 얻게 되는군요.

나는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스스로를 곧없이 이겨내고 서로를 한없이 사랑해야 하는 이땅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힘은 바로 그대와 내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보이지 않는 「동지적 사랑」이라고…」

엄 상 란
〈서학·불어3〉

만나고 싶으십니까?

의미있는 만남을 갈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글을 통해 외대 학우들과 만난다면 그 만남은 더욱 값질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읽고 싶은 원고를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은 지금 외대학보사로 오십시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학우들이 있습니다.

시, 수필, 일기, 서간문(각9매), 콩트, 서평, 영화평(각12매)등 어떠한 글이라도 좋습니다.

〈문화부〉

문예신책

오늘로 이어지는 오월의 함성

—영화 〈부활의 노래〉를 보고

광주항쟁 이야기. 그러나 단순한 기록영화는 아니었다. 군정시대에 억압받던 민중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희생과 그것을 현재로까지 연장하려 한 영화였다.

이 영화는 네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희곡을 읽듯이 각 장면의 제목이 관객에게 제시되는데, 장면에 거는 기대에 맞게 충분히 보여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영화의 중·후반에서는 진달하려 했던 의미들이 이성에 호소하는 무겁고 추상적인 대사들로 대부분이 처리돼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떨어뜨렸다.

첫째장인 「살림음위의 사랑」에서는 광주 모대학의 법대에 재학중인 철기가 선배 태일의 제적을 보며 사회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후 야학에 다니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민중중심의 확고한 사상을 갖게되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 장에서 철기는 집회에

모인 학생들에게 『학원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주역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도서관·강의실에도 있는 학생 모두입니다. 그러니 가서 모든 학생들을 불러 모음시다』라고 외친다. 이 말은 객석의 관객을 향한 호소의 외침으로 들렸다.

둘째 장 「폭풍전야」에서는 총학생회장에당선된 철기가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광주학살이 시작되자 태일과 그의 연인 민숙의 투쟁을 뒤로 한 채 몸을 피신하여 서울로 잠입, 도피생활을 시작한다. 폭력적인 장면들을 압축된 몇장의 사진으로 대치하여, 화면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폭정의 모습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셋째 장 「겨울로의 긴 잠항」에서 철기는 서울에서 우연히 동료 현실을 만나 현실의 회상 속에서 태일과 민숙의 죽음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의 회피적인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함께 노동자의 삶을 택한다.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치고 회상속에서 전개되는 도청에서의 최후결전 상황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아 일부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지, 인력동원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삭제되었는지 의문이 생겼다.

넷째 장 「부활의 노래」에서는 현실과의 신혼생활에 행복을 느끼던 철기가 광주항쟁의 주동자로 잡혀가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연해진 두 부부는 감옥과 사회에서 각각 그들의 투쟁을 생활속에 지속시켜 나간다.

특히 철정부분에서 철기의 아이를 낳만하려는 현실의 모습과 태일·민숙의 망자혼례굿, 그리고 체포된 철기가 감옥에서 38일째 단식을 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산모의 비명소리와 풍물소리등의 음향효과에 맞춰 점차 긴장이 고조되다가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 세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고통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희망의 표현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이런 관객은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아직 표현에 미숙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내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사회적인 충격들이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자신들의 생활로 느껴졌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척박하다는 뜻이리라.

그렇지만, 현재 한국영화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흥행과는 거리가 멀고, 청와대로부터 관심이린(?) 시선을 받음직했던 이 영화를 명동에 있는 극장에서 상영하게 된 용기와 오늘도 살아있는 광주시민들의 의지가 화면 가득히 느껴졌다.

이 영화가 보통의 상업영화와 다른 것은 단지 작품을 보고 즐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현실참여의식과 사회모순을 이겨내려는 진지함이 보다 강하게 다가오는 영화였다.

피폐·저질적인 영화의 범람과 외국영화의 직배로 인한 국내 영화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화가 계속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결코 헛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 축축히 젖은 신발로 들어 선 영화관이었지만, 그곳은 나올 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울 수 있었다.

김 선 정
〈서학·이태리어2〉

파수대

"진짜 고민해야 할 사람은?"

—지난 7일(목) 학생처 폐쇄 직전 서울캠퍼스 정원택 총학생회장이 직원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재영기자〉

문화 응답샘

문학의 힘과 비평의 깊이

—이응우 지음

저질문화가 판을 치고 현학적인 비평이 난무하는 현시대 문학계에 대한 고민에서 쓰여진 문학평론집이다.

분단극복의 문학, 80년대 주목받던 작가인 조정래·김남주·이문열의 작품에 대한 평, 우리시대 문학의 쟁점, 북한문학 등에 걸쳐 저자의 광범위하고 체계성있는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적 통찰을 통한 살아있는 비평이 돋보이는 책이다. 〈온누리퍼낸 값5천원〉

실천문학 91년 봄호

최근 문학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리얼리즘 논쟁에 대한 세번째 기획으로 「시(詩)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시론」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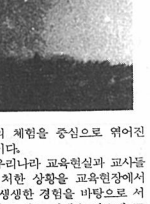
또한 제1회 실천문학상 수상자 박혜강의 「점은 노을」과 백무산의 장시 「페레스트로이카 귀하」를 비롯해 신작시·소설이 실려 있으며, 초점으로 「대중사회와 민족문학」이 수록되어 있다.

〈실천문학사퍼냄 값4천5백원〉

이 땅의 교사로 서기 위하여

—김정환외 지음

해직·파면으로 교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교조 해직교사의 체험을 중심으로 엮어진 책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책은 강요된 교육의 틀을 바꾸기 위해 시도했던 수업방식과 학생자치활동을 소개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참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풀빛퍼냄 값4천3백원〉

여성노동자와 임금

—한국여성연구회외 지음

노동자에게는 항상 장시간노동·저임금의 고통이 있지만 특히 여성노동자에겐 차별임금이라는 이중의 압박이 있다.

80년대부터 여성노동자내에서 목적의식적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차별임금해소를 위해 이 책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예로 소련과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은 이책은 차별임금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녘퍼냄 값3천원〉

통신시장개방과 정보사회

—통신문제연구회 지음

「정보사회」라는 말이 한대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정보통신산업은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고,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이책은 미국의 개방요구에 맞서 우리의 통신주권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풀빛퍼냄 값4천5백원〉

그대 외대의 자랑, 외대 그대의 자랑

조인영 목사
1978년 동양어대 일본어과 입학
1982년3월~1984년 7월 선교교육원 수료
1988년 7월 「송현샘 교회」설립

달동네 이웃의 작은 쉼터임을 큰 기쁨으로 아는 말없는 사랑의 실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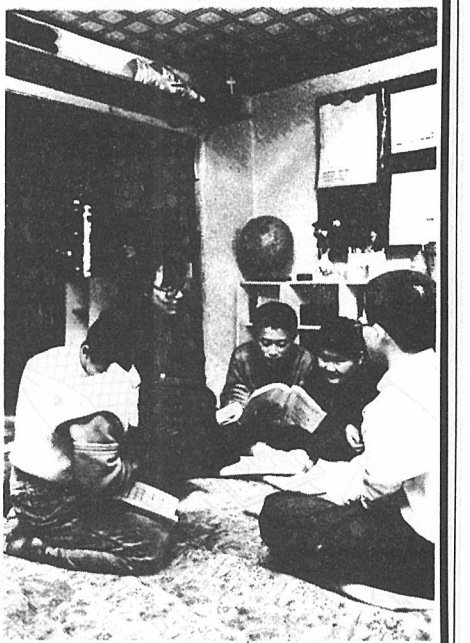
동인천역에 내려 힘들게 찾아 간 송현동에는 공단이 들어서 있고, 아파트가 있고, 맞은 편에는 그 아파트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와 5층 정도돼 보이는 최첨한 회색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전화로 확인한 유달리 밝은 목소리를 가진 조인영 동문의 삶의 터전이 있다.

머리털 나고는 처음 찾아 가 보는 달동네를, 방한칸에 코딱지만한 부엌, 울타리 대신 좁은 골목으로 구분지어진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제는 밝은 얼굴까지 확인한 조인영 동문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둘러 보고 「송현샘교회」라는 곳을 찾았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 뛰놀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동활 가서 느낄 수 있었던 아이들의 수줍어함과 해맑은 인사를 대했다.

15평 남짓되는 이곳에서 조 동문은 목회 활동과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밑빛이를 해야만 하는 부모들의 못다한 관심과 사랑을 동네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대(代)를 이은 가난이라는 굴레는 부성애와 모성애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소외 당해 특히 문제아, 열등아가 많은 곳이 곳이라고 조동문은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놀이방과 공부방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놀이방·공부방은 매일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 취학 아동과 중등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부와 함께 아이들을 바른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참교육, 공동체 놀이, 상담 등을 주된 내용으로 조 동문과 인근 지역 대학생 자원 교사 8명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현샘 선생님이 화를 낼 때는 무섭지만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가 따분」이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놀이터는 물론이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방한칸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편하고 유익한 곳이다.

조 동문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그래서인지 자선 활동가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어려운 현실에 먼저 뛰어 들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꾼들의 부족을 느낄 때나 조 동문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질 때 심한 낭패감에 빠진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로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들의 작은 쉼터가 될 수 있기에 「수고한다」는 애정어린 주민들의 말 한마디에도 어디에 비길 수 없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 간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심한 갈증을 느끼는 외대생이 있다면 송현동 달동네를, 송현샘 교회 조인영 동문을 떠올려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외대생이 있다면 (0342)752—3603으로 돌리고 조인영 동문을 찾아보자.